소년단

1962. 8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즐거운 야영 생활 (석암 야영소에서)

소년단 1962년 8호 내용

나 어린 정찰병

리 정인

그림 김 성엽

소년단원 동무들!

나는 소년단원의 의무 여덟 번째에 《소년단원은 소년단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며 소년단 회의에서 하기로 한 일과 맡은 일을 어김 없이 실행하여야 한다.》라고 씌여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된 것이니만큼 여러 사람이 한 마음 한뜻이 되고 하자고 한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조직에서 하자고 한 일을 한 사람이라도 실행하지 않는다거나 조직에서 주는 위임을 제때에 해 내지 않는다면 그 조직은 규률 있고 튼튼한 조직으로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만큼 해를 주는 것으로 됩니다.

벌써 30년 전 일이지만 우리가 아동단 생활을 할 때 우리 아동단원들은 조직에서 내놓은 일들과 자기에게 분공된 일은 목숨을 내 걸고라도 끝까지 수행하였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때 12 살 났던 리 태식이라는 아동단원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1932 년 연길현 노투구 남시거우에서 아동단 생활을 할 때 있은 이야기입니다.

일본 경찰놈들은 노투구에 커다란 포대를 쌓아 놓고 매일 같이 죄 없는 인민들을 잡아다가는 고문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였습니다. 우리 아동단에서는 지구 공청으로부터 왜놈 경찰서 포대 안을 정찰해 오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유격대에서 경찰서를 습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중으로 왜놈들의 눈을 피해 가며 청금이라는 동무네 집 뒤'고방에서 아동단 회의를 가졌습니다.

동무들은 저마다 이 어려운 정찰 임무를 자기에게 맡겨 달라고 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이 어려운 정찰 임무를 리 태식이와 리 청금 동무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다음 날 청금이는 산나물 팔러 다니는 소녀로, 태식이는 누더기 옷을 입은 거지로 가장하고 거리로 내려 갔습니다.

태식이는 이집 저집을 다니며 동냥을 하다가 밤이면 쓰레기통 곁에 누어 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였습니다. 새우잠을 자던 태식이는 구두'발에 채워 깨여 났습니다. 그것은 일본 순사놈이였습니다.

《너 어데서 왔소까?》

《…》

《왜 말을 안해?》

순사놈은 태식의 귀를 잡아 끌고 경찰서로 가더니 옷을 벗겨 가며 몸두짐을 시작하였습니다. 태식의 주머니에서는 그 며칠'동안 동냥해서 얻은 돈 80 전이 나왔습니다. 순사놈은 입을 헤벌리고 한참 돈을 세여 보고는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이건 어데서 난 돈이냐? 도적질이나 했지?》 하며 미친개 눈알 굴리듯 하더니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 넣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는 태식의 엉덩이를 발'길로 걷어 차며 나가라고 내 쫓는 것이였습니다.

태식이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동냥해 얻은 돈이예요, 줘요》.

태식이는 그놈의 팔에 매여 달리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순사놈은 돼지 멱 따는 소리로 무어라고 웨치고는 태식의 두 귀를 틀어 쥐고 벽에다 서너번 머리를 찧어 놓고 바깥문 쪽으로 콱 밀쳐 냈습니다. 문'간에 나자빠진 태식이는 두 손으로 눈물을 북북 닦으며 더욱 기를 쓰며 우는척 했습니다.

태식이가 이렇게 순사놈을 따라 들어간 곳은 무기고였습니다. 무기고에는 번쩍번

쩍하는 무기 50~60 정이 눈에 띄였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바가야로! 왜 여기 들어 왔는가》.

순사놈은 태식이가 무기고 문간에 들어서려는 것을 보고는 황급히 뛰여 나오며 우악스러운 손으로 태식의 목덜미를 틀어잡고 뒤'뜰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놈 무기고에는 왜 들어 왔는가, 죽고나 싶어?》

태식의 가슴에다 권총을 겨누어 대고 순사놈은 위협을 했습니다.

《돈 줘요, 내돈…》 태식이는 그냥 그놈의 발에 매여 달리며 돈을 달라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말라꽁이 순사 한놈이 《어이 그 자식께 나무나 패워》라고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그날 태식이는 경찰서 뒤뜰에서 나무를 패며 포대 안의 건물 배치와 보초 교대 시간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나무를 다 패고 났을 때였습니다.

다른 쪽에 있는 나무 무지를 가리키며 《저것도 마자 패야 돈 줘》하며 순사놈은 돈 줄 생각은 않고 태식이를 내쫓았습니다.

태식이는 돈을 달라고 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그놈은 《그럼 밥이나 주지》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 가는 것이였습니다.

(옳다. 저놈을 따라 식당 안에 들어가 보면 순사놈들이 몇놈이나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태식이는 그놈의 뒤를 따라 식당 안으로 들어 갔습니다.

《더러운 거지놈 자식 나가!》하고 소래기를 지르며 그놈은 식당 구석에 있던 도끼를 집어 던졌습니다. 도끼는 태식의 발등에 맞았습니다. 발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금시 숨이 넘어 가는듯 하여 태식이는 땅에 쓸어져 울어 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긴장된 눈으로 식당 안을 살펴 보았습니다. 식당에 놓여 있는 숟가락 통들에는 70 여 개의 숟가락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식이가 자꾸 울며 돈 내라고 졸라대는 바람에 어쩔 바를 모르고 섰던 순사놈은 부엌에 나가 누룽지를 갖다 주며 래일 와서 다시 나무를 패면 주겠다고 얼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날 태식이는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나물 팔려 온 청금이에게 자기가 정찰한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침부터 찌프리고 있던 날씨는 밤이 깊어 가자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쓰레기 통 곁에 쪼구리고 누은 태식이의 몸은 발에 입은 상처로 하여 오시시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상처에는 사정 없이 비'물이 스며 들어 더욱 쑤시며 아팠습니다. 아찔해지는 정신을 가다듬으며 태식이는 래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난 아직 조직의 위임을 다 수행하지 못하였다. 어떤 일이 있어도 래일까지는 정찰 임무를 끝내야한다.)

다음 날 아침이였습니다. 해'살이 온 누리에 퍼지자 불이 나게 경찰서를 찾아 간 태식이는 어제 그 순사놈을 붙잡고 《또 나무를 패겠어요 그럼 오늘은 꼭 내 돈 주지요 네?》

순사놈은 준다 안 준다 소리 없이 나무를 패라고 했습니다.

태식이가 한참 나무를 패고 있을 때였습니다. 통조림을 그득 실은 마차 두 대가 들어 왔습니다.

마차를 타고 온 놈들이 짐을 부리우며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놈들이 일주일 후에 천보산으로 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슥하여 팔에 붉은 천을 두른 놈이 4 명의 졸병을 데리고 보초 교대를 하려 나왔습니다. 보총을 멘 두 놈은 동문과 남문에서 교대하고 경기관총을 멘 두 놈은 포대에 올라 가 교대하는 것이였습니다.

태식이는 그저 수걱수걱 나무를 패는척 하며 이 모든 것을 알아 냈습니다.

이날 순사놈은 돈 십전을 주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며 태식을 쫓아냈습니다.

조직에서 맡은 정찰 위임을 수행한 태식의 마음은 끝없이 기뻤습니다.

그는 당장 동무들에게로 달려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곧 거리에서 없어진다면 놈들이 수상히 여길가봐 정찰한 내용을 청금이에게 주어 보내고 사흘'동안이나 더 거지 노릇을 하며 거리를 돌아 다녔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천보산에 《토벌》갔던 왜놈들이 쫄딱 녹아 났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소문이 난지 사흘만에는 경찰서가 유격대의 습격을 맞아 녹아났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이 이야기는 아동단원들이 조직에서 맡은 위임을 어떻게 끝까지 수행하였는가를 보여 주는 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태식이는 오직 자기 목숨을 혁명의 리익을 위해 바치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고 조직에서 주는 위임을 충실히 수행하였기 때문에 혁명에 큰 리익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동단원들은 모두가 이와같이 조직의 위임에 충실했습니다.

아동단의 모범을 따르는 여러 소년단원 동무들도 아동단원 태식이처럼 조직에서 주는 위임을 끝까지 수행하는 참된 소년단원이 되여 주기를 바랍니다.

도끼장군

(제4회)

리원우 글 남현주 그림

㊲ 일'군 총각은 사흘 밤을 울었다는 장수 바위 우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군 총각은 바로 그장수 바위에 앉아서 행복의 다락집을 짓는 공상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일'군 총각의 생각엔 만일 그 바위가 울었다면 어딘가 있는 신기한 장수들이 나타나서 도끼메 부산땅을 꼭 지켜 줄 것만 같았습니다.

㊴ 일'군 총각은 새 도끼 자루를 깎아 맞추면서 어서 신기한 장수들이 나타날 것을 소원하였습니다. 일'군 총각은 동네로 들어 오는 길'가에 솟아 있는 산으로 올라 갔습니다. 그 산에 큰 바위 작은 바위들을 굴려다 큰 돌무데기들을 여기, 저기 우뚝우뚝 쌓아 놓았습니다.

㊳ 신기한 장수야 원쑤 치러 나오렴.
우리네 부모 형제 살려 주려 나오렴.
우리 나라 장수야, 우리 부탁 들어 주렴.

일'군 총각은 이 노래를 부르며 주인 령감네 집이 아닌 다른 집에서 무엇에 쓰려고 그러는지 참나무 몽둥이를 깎고 있었습니다. 다른 젊은이들도 무엇인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온 도끼메 부산땅이 무엇인지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㊵ 그 때 젊은이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달려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끌고 가는 말님이였습니다. 산 밑에 와서 멈춰 서서 돌 무데기를 올려다 보며 적이 벌써 오십 리 밖에 와 있는데 그 따위 돌무데기가 무슨 맥을 추겠는가고 말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끌고 가는 말님은 말을몰아 냅다 뛰어 갔습니다.

㊶ 사람들은 땅을 치며 달려 가는 말을 물끄럼히 쳐다 보며《아마 집에 화살을 가지려 가는 모양이군. 원쑤와 싸우기 위하여…》

하고 들 말하였습니다.

그 때 주인 령감네 집에서는 도망을 가느라고 야단 법석궁이 일어났습니다.

량식섬을 실으면 금덩이를 가지고 가고 싶고 그런가 하면 이것도 저것도 가지고가고 싶어서 법석궁이 일어난 판에 말을 타고 달려 온 아들놈이 적이 50 리 밖에 왔는데 뭘 꾸물꾸물하는가고 말하고는 자기 혼자 말을 타고 냅다 달아났습니다.

㊷ 일'군 총각은 주인 령감네가 저만 살겠다고 고향을 버리고 달아났다는 말을 듣고 괴씸하게 생각하며 주인 령감네 집으로 가 보았습니다. 열린 대문, 여기 저기 딩구는 짐짝들, 그런데 사방에서《일'군 총각이 왔다. 일'군 총각은 달아나지 않았다.》하고 보습, 호미, 낫, 괭이, 쇠스랑들이 반겨 맞아 주었습니다.

일'군 총각은 그것들을 소중스럽게 간직해 두고 젊은이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 왔습니다.

㊸ 일'군 총각은 어머니를 만나 뵙고 마을 젊은이들이 돌성을 쌓고 도끼와 몽둥이를 들고 일어났다고 말씀 드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몸 편히 계시라고 작별 인사를 올렸습니다. 돌아 오는 길에 진달녀도 만나서 전쟁이 끝나고 다시 만나거들랑 동쪽의 산상에 행복의 다락집을 짓고 어머님 모시고 오손도손 살자고 약속하고 작별했습니다.

㊹ 왜놈 수만 명이 평양성을 지나 도끼메 부산땅으로 달려 든다는 소문이 떠 돌았습니다. 왕가당 뎅 뎅 뎅가랑 뎅 뎅 무쇠 항아리들이 일시에 닥쳐 온 위험을 알리자 온 도끼메 부산땅은 주먹을 떨며 일어났습니다.

㊺ 《애야, 경종이 운다. 칼 든 원쑤 달려 든다. 용감히 싸워 이겨라.》《총각님, 경종이 웁니다. 용감히 싸워 원쑤를 꺼꾸러 쳐 주세요.》

일'군 총각은 어머니와 진달녀의 목소리를 귀'전에 들으며 큰 도끼 하나를 들고 돌 무데기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㊻ 도끼메 부산땅엔 방금 눈 앞에 큰 위험이 닥쳐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향하여 방금 눈 앞에 큰 칼과 큰 창이 날아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눈들이 원쑤놈들을 봤고 모든 가슴들이 위험을 느낀 순간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쳐다 보았습니다. 거기엔 신기한 장수는 한 사람도 없고 자기 부모,자기 형과 동생들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달려 드는 원쑤들을 노려 보고 있었습니다.

㊼ 적들은 미쳐 산 우를 보지 못하고 동네를 향하여 활을 쏘며 달려 들다가 산 밑에 파 놓은 우리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 때입니다. 누구인지 찌르릉 소리가 나게 웨치자 돌무데기들이 우르르 무너져 내려가 함정 불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놈들을 모주리 깔아 죽였습니다.

㊽ 그제야 사람 키만한 돌 무데기들을 발견한 적들은 활을 올려 쏘며 올라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어디서 나타 났는지 신기한 장수 한 사람이 돌무데기 사이에서 도끼를 휘둘러 치며 뛰여 나갔습니다. 돌무데기 사이에서 적들을 노려 보던 동네 젊은이들은 뛰여 나가는 신기한 장수를 쳐다 보았습니다.

신기한 장수는 이름 없는 일'군 총각이였습니다.

사회주의 조국은 참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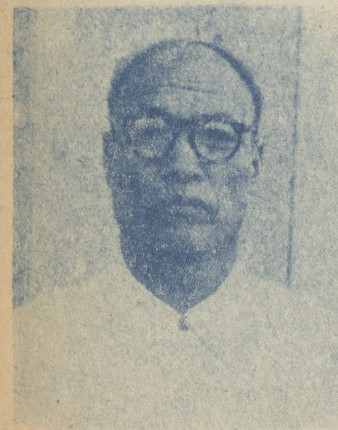
오늘 우리는 사회주의 조국의 넓은 품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배우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날을 따라 자꾸 늘어만 갑니다.

우리는 행복하면 할수록 《복속에서 복을 모른다》는 말과 같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를 잊지 말고 사회주의 조국에서 사는 자랑과 영예를 깊이 간직하고 우리 나라, 우리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빛내이도록 열심히 공부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튼튼히 키워 나갑시다.

우리에게 오늘의 행복을 가져다 준 사회주의 조국이 어떻게 이루어 지고 사회주의 조국이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가에 대하여 아래에 글을 싣습니다.

혁명 선배들의 피로써 이루어진 조국

조선 혁명 박물관 부관장

박 성 우

《…나는 오늘의 행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똑똑히 알았다. <한홉의 미시'가루>, <고난의 40 일>, <돈화의 수림 속에서>,…항일 빨찌산 아저씨들은 오늘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곤난을 물리치며 싸웠다.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의 피로써 이룩된 사회주의 조국에 태여'난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김 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이것은 함경남도 신포시 양화 중학교 초급반 1 학년 신 귀선 동무가 조선 혁명 박물관을 관람하고 쓴 감상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동무들은 김 일성 원수님께서 령도하신 우리의 항일 빨찌산 투사들이 싸워 마련해 준 사회주의 조국이 있기에 그처럼 마음껏 배우며 행복하게 뛰 놀고 있습니다.

동무들은 혁명 박물관에서 통조림통을 펴서 만든 롭을 보았을 것입니다.

오그라지면 펴고 또 펴서 동상을 입어 썩어 들어 가는 자기의 살

파 뼈를 5 일 동안이나 켜서 짤라 낸 유격대의 군수부장 아저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때의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의 행복한 조국을 환히 내다본 아저씨는 원쑤놈들과 싸우기 위하여 상처와 싸워 이겼습니다.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은 그 누구나 오늘의 행복한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생명도 청춘도 다 바쳐 싸웠습니다.

조선 혁명 박물관에는 수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찾아 옵니다.

그들 중에는 전국 각지의 공장, 광산, 농촌에서 온 천리마 기수들도 있고 량강도의 한끝 아맘한 협동 마을에서 찾아 온 할아버지와 할머니들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분계선 마을에서, 바다'가에서 찾아 온 소년단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15 년이란 긴 세월을 두고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이 피 흘려 싸워 이긴 자랑찬 길을 더듬으며 오늘의 행복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한 조국을 굳건히 지키며 더욱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힘써 일하며 배울 결의를 다시금 새롭게 다집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하면 할수록 우리는 오늘의 사회주의 조국을 위해 피 흘려 싸운 혁명 선배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혁명 전통을 더욱 빛내이며 혁명 투사들의 피로써 이루어진 사회주의 조국을 부강하게 하고 원쑤들이 얼씬 못하게 굳건히 지켜 나가야 합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몸과 마음을 굳게 다져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을 더욱 빛내여 나갑시다.

로동자가 발명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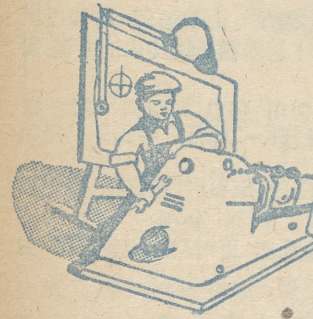
평양 제침 공장 기사장
로력 영웅 김 덕 정

소년단원들이 붉은 넥타이를 자랑스럽게 휘날리며 학교로 가는 모습을 보면 나는 나의 어린 시절이 생각 나서 발걸음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동무들처럼 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에 왜놈의 자본가가 경영하는 유리 공장에 들어 가 로동을 하였습니다. 새벽 3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밤 10시~11시 까지 하고 나면 잠 잘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본가놈은 새벽 3시에 일어 나지 못한다고 잠 자는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 불꼬지로 살을 지져 내몰군 하였습니다.

이처럼 나는 어린 시절을 고된 로동과 무서운 채찍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술을 배워 보려고 왜놈 기능공들이 일하는 기계 곁에 가 서서 보기도 하고 기계가 놀 때면 몰래 부속을 뜯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발견되는 날이면 무서운 매를 맞군 하였습니다.

이런 원통한 일은 일제 식민지 통치때 나 혼자만이 겪은 것은 아닙니다. 동무들의 아버지, 형님, 누나들이 다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내가 해방 후에는 나라의 주인이 되였을 뿐만 아니라 당의 따뜻한 품에 안겨 오늘은 로동자 발명가로 되였고 공화국 로력 영웅 칭호까지 수여 받았습니다.

나는 언제나 당과 원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새 기계를 만들어 이 깊은 배려에 보답하려고 결심하고 노력하였습니다. 16 명이 하던 일을 혼자서 할 수 있는 자동 종합 미공기를 만들 수 있은 것도 오직 당과 원수님의 따뜻한 배려와 고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련결식 자동 기계를 만들어 19 명이 하던 일을 혼자서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제'날의 로동자와 머슴'군이 오늘은 나라의 주인이 되고 기사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발명가가 되는 세상—이것이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이며 로동당 시대입니다.

오늘 조선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님을 모시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노래하는 지상 락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7 개년 계획을 완수하고 사회주의 더 높은 봉우리에 올라 설 그 날을 생각해 보십시요. 지금도 좋지만 소년단원 여러 동무들이 커서 물려 받을 래일의 조국은 얼마나 좋을 것입니까! 그 날을 위해 꾸준히 배우며 준비합시다.

머슴'군이 학자로 되는 세상

학 사 원 하 옥

소년단원 동무들,

동무들은 장차 크면 누구나 다 조국의 훌륭한 과학자 발명가가 될 생각으로 가슴을 불태우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주의 조국에서는 원하면 원하는 대로 노력만 하면 못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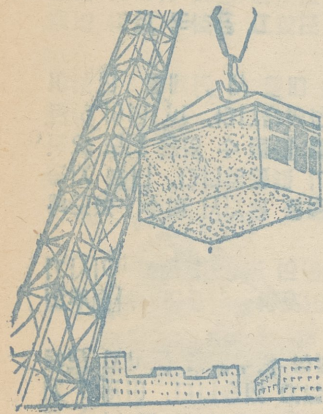
나는 8.15 해방 전 왜놈 때 억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아직 세상 일을 잘 모르던 나는 그래도 공부를 해서 장차 훌륭한 과학자가 될 것을 마음 먹고 공부를 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지주 자본가놈들만이 잘 사는 세상이였던 그때 그것은 한갖 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여섯살 때부터 소먹이'군 노릇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지주놈의 땅을 소작도 하고 도시에 나가 로동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 하나만은 공부시키겠다고 아득빠득 애를 쓰다 앓아 눕게 되였습니다.

해방이 되였습니다. 어머니—사회주의 조국의 품 속에서 나는 마음 대로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아버지의 병도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고치였습니다.

당과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도 나를 쏘련으

사회주의 조국은 참 좋다!

로 류학을 보내 주었습니다.

나는 마음껏 공부하여 지금은 건축 학사가 되였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옛날 지주, 자본가들의 세상 같으면 어떻게 소작농의 아들이며 소먹이'군인 내가 학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꿈엔들 생각이나 해 볼 일입니까.

머슴'군이 과학자, 기술자가 되고, 지배인이 되고 박사가 되는 세상—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는 얼마나 좋습니까!

소년단원 동무들! 이 좋은 세상에서 꾸준히 노력만 한다면 무엇인들 못해 내겠습니까.

모두다 열심히 공부하여 조국 앞날의 훌륭한 과학자, 기술자가 되기 위해 힘씁시다.

모든 사람이 일하고 배우며 행복하게 사는 지상 락원

허 노랑녀

옛날 지주 자본가놈들과 예수쟁이들은 살아서 좋은 일을 하면 죽어서 《천당》으로 간다고 했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야말로 하늘의 《천당》이 아니라 땅 우의 《천당》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근심 걱정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일하고, 배우며, 춤 추고, 노래하는 세상! 이게 지상 락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집은 평양 외성 구역 련화동 24 반 6 층 아빠트입니다. 우리 집 식구는 모두 아홉인데 아들 손자 여섯을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맏아들 창정이를 비롯하여 여섯이 주룬이 가방을 들고 나서는 것을 보면 대견하지요.

일요일이나 되면 집안이 온통 흥성거리지요. 왜정 때에는 아들 4 형제가 주렁주렁 있었지만 소학교 문 앞에도 못 보내였습니다. 지주놈의 소작살이를 하면서 간신히 살아 왔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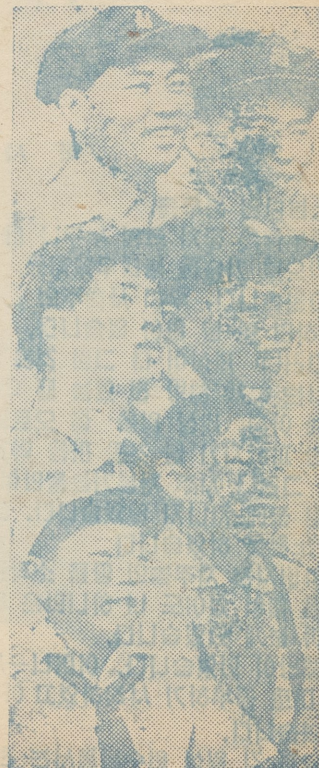
그러던 아이들이 오늘은 중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니 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내 맏아들 창정이는 평양 의학 대학 특설 학부에서 달마다 월급까지 그대로 타면서 공부를 합니다. 다른 아이들도 모두 나라에서 장학금을 받고 철 따라 교복을 타 입으며 학교에 다니고 있으니 이런 좋은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 좋은 세상에서 수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0 환갑을 넘겨 오래오래 살겠습니다.

오늘 이처럼 살기 좋은데 이제 7 개년 계획이 끝나면 그 때에는 또 얼마나 더 좋아지겠습니까!

우리 나라의 앞날의 주인들인 우리 어린이들은 공부도 잘 하고 몸도 튼튼히 단련하여 당과 김 일성 원수님께 충성을 다 하는 나라의 참된 일'군이 되십시오.

친한 동무

—함남도 북청군 안곡 중학교 단 제 3 분단에서—

본사 기자 백 승옥

그림 리 건영

토요일 마다 분단 열성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앉아 한 주일 동안 한 일들을 총화짓군 했어요.

5월에 들어 와 두번째 되는 토요일날이였지요. 2반 반장 송훈이의 말에 동무들의 마음은 어두워졌어요.

동영이가 또 학교를 결석한 것입니다. 학교를 결석한 동영이는 오각별 마을에 있는 인민반 아이들과 군사 놀음을 하며 놀다가 동무들이 찾아 갔을 때는 자기 집 울 안에 있는 벼'짚 낟가리 속에서 자고 있더라는 것이예요.

《그앤 찾아 갈 적마다 숨기 내기야.》

《그래도 부끄러운 줄은 아니까 그러지.》

벽보 주필인 효한이와 송훈이는 못 마땅하다는 듯이 말 했어요.

정말이지 동영이 때문에 분단 동무들은 얼마나 많은 속을 태워 왔는지 모릅니다. 동영이는 지난 해 6월에 철웅이네 집 배나무에 올라 갔다 떨어져 병원에 입원했다 나온 후부터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때 공부가 많이 뒤떨어진 탓이라고 생각한 분단 열성자들은 곧 명종이나 송림이처럼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을 붙여서 그의 학습을 힘껏 도와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동영이는 공부하기 보다 군사 놀음과 고기 잡이에 더 정신이 팔려 사흘거리로 학교를 결석했답니다.

《우린 그애에게 학교에 안 나온다고 너무 욕만 했어…》하고 분단 위원장인 용택이가 한참만에 말 문을 열었어요.

《우리가 찾아 갈 적마다 동영이가 숨는 것도 그때문이거든…》 이 말에 분단 기수인 근종이도 머리를 끄덕였지요. 《욕만 자꾸 하지 말구 우리도 군사 놀음이나 고기 잡이 같은 재미 있는 일들을 조직했으면 좋을 걸 그랬지? 그랬으면 동영이 뿐 아니라 모두가 다 좋아 했을 걸…》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자구나.》

분단 위원 정환의 말에 동무들은 모두 찬성하였어요.

이렇게하여 분단에서는 그후 때때로 일요일이나 방과후에 집체적으로 남대천 강'가로 고기 잡이도 가고 또 석재봉 숲속을 헤치면서 등산도 했습니다.

동영이는 공부는 남보다 떨어졌지만 놀음에서는 뛰여 났어요. 물 속을 가만히 겨누고 있던 동영이가 작살로 펄펄 뛰는 산천어며 뚝장개를 잡아 낼 때 마다 동무들은 《야!》하고 환성을 올리며 그를 부러워 했지요.

《동영아! 넌 참 재간이 있구나!》

《고기가 너만 보면 꼼짝 못하니 참 조화다…》 이럴 때 마다 동영이는 신이 나서 노상 벙글벙글 웃고 있었어요.

승지 마을 2반 동무들은 날마다 동영이와 함께 렬을 지어 노래 부르면서 학교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반실에 모여 재미 있게 공부했지요.

동무들은 동영이의 학습을 친절하게 도와 주었지요. 그리하여 동영이는 차츰 학

습에 재미를 부치게 되였지요.

한번은 반 공부 때 동영이가 칠판에 나가 대'수 문제를 풀려는데 때마침 정전이 되여 전등'불이 꺼졌다는거예요.

한참 후에 다시 반짝 하고 불이 켜지자 동영이는 줄줄 문제를 풀어 내려 갔는데 그는 어둠 속에서도 줄곧 문제를 풀고 있었다는거예요.

《동영인 인젠 문제 없이 고쳤어…》

《동영이 걱정은 인젠 안 해두 돼…》하고 동무들은 모두 기뻐했지요.

어느덧 학기말 시험이 닥쳐 왔습니다.

분단은 이번 학기말 시험에서 모두가 우등, 최우등의 훌륭한 성적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일들을 조직했지요. 《학기말 시험에서 모두가 승리자의 영예를 지니자》라는 제목으로 분단 모임을 가지고 뒤 떨어진 동무들을 돕기 위한 사업들을 조직했습니다. 온 분단은 하나로 뭉쳐 학습을 위해 들끓었지요.

이럴지음에 분단에는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동영이가 또 학교를 결석한 것입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분단 동무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동영이를 찾아 떠났지요.

《아마 몸이 아파서 못나왔겠지머…》

《하긴 알거 뭐야…요새 한동안 놀질 못했으니까, 생각이 나서 놀러 갔을지 알어…》 분단 위원장 용택이와 위원인 정환이는 서로 이렇게 말하며 그의 집을 찾아 갔습니다. 그러나 집엔 없었어요. 그들은 다시 석재봉 골짜기로 달려 갔습니다.

《우린 동영일 너무 안심하고 있었어.》

《좀 나아졌다고 이젠 다 고쳐진 것으로 여겼거던…》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석재봉 기슭에 다달았을 때 《동영이 여기 있다…》하고 고함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앞서 가던 일홍이의 목소리였어요. 두 동무는 단숨에 그리로 달려 갔지요.

황철 나무 잎사귀로 온통 몸을 위장한 동영이가 바위 틈에 앉아서 난처한 얼굴로 동무들 쪽을 바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인민반 아이들은 어느새 기미를 알아 차리고 뿔뿔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동영아! 너 이게 웬 일이냐?》

《시험도 학습도 다 잊었니?》

그들은 동영일 보자 원망부터 앞섰어요. 어느 새 알고 달려 왔는지 남대천강'가로 나갔던 필용이와 송훈이도 왔고 오각별 마을로 나갔던 근종이와 효한이랑 심이들도 왔습니다. 성미가 급한 명종이와 필용이는 《너 정신 있니?》하며 금시 동영이에게 달려라도 들듯 했지요.

《명종아!》하고 눈으로 그를 막은 용택이는 동무들을 모두 그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동영아! 너 때문에 분단 동무들이 얼마나 애타하는지 아니?》 용택이는 성난 목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기만이가 아픈 다리를 끌면서 학교에 나오는 것도, 용길이가 이번 시험에 꼭 우등을 하겠다고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하는 것도 넌 보지 못하니?》

동영이의 머리는 점점 숙으러 들었어요. 정말이지 동영인 동무들 보기가 부끄러웠어요. 자기 때문에 걱정하는 동무들의 마음을 동영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따라 어머니 심부름을 갔다 오느라고 동무들 보다 늦어서 집을 나온 동영이는 마을 어구에서 석재봉 골짜기로 올라 가는 오후 반인 인민반 아이들을 만나자 그만 모든 것을 잊고 말았던 것이예요.

《동영아! 우린 널 기쁘게 해 주자고 군사 놀음 계획을 세워 놓고도 하질 못했단다…그건 우리의 잘못이야…그렇지만 이번 여름 방학엔 실컨 하자꾸나! 군사 놀음도 고기 잡이도…》

근종이 말엔 동영이의 머리는 점점 더 숙으러 들었어요.

때 아닌 〈모임〉을 석재봉 골짜기에서 가진 분단 동무들은 한참 후에 동영이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 왔지요.

그로부터 얼마 후였습니다.

기다리던 비가 시원스럽게 착 착 내려 붓는 어느 날 밤이였어요.

《동영아… 네가 요샌 학교에 잘 가고 또 공부도 잘 하니 어머닌 정말 기쁘다.》 하시며 책상에 마주 앉아 래일 학습 준비를 하고 있는 동영일 보시며 어머니가 말씀 하셨어요. 어머니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동영이의 마음도 기뻤습니다.

석재봉 골짜기에서의 모임이 있은 후부터 동영이의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위해 그처럼 진정으로 걱정해 주는 분단 동무들을 다시는 속태우지 않으리라고 굳게 결심했던 것입니다.

시계가 땡땡 열시를 알렸습니다. 그만 자고 래일 또 공부하라는 어머니 말씀에 책상 우를 거두려는데 별안간 《동영아!》 하고 부르는 낯 익은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아! 창수다》 동영이는 깜짝 놀라 문을 열었지요. 아까 반실에서 헤여진 창수가 무엇인지 보자기에 싼 것을 들고 우산을 쓰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창수는 분단에서 이번에 동영이의 대수 공부를 도와 주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 비 속에 웬일이냐? 어서 들어 오너라…》 어머니도 밤'중에 찾아 온 창수를 반가이 맞아 들였습니다.

방안에 들어 온 창수는 보자기를 펼치고 무엇인가 알락달락하게 색칠을 한 딱찌들을 내 놓았어요. 그것은 마분지에다 색칠을 하여 만든 건데, 사각형, 구형 모양으로 된 딱찌들에는 잘다란 눈'금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하며 신기해서 바라보는데 《이건 방정식 풀이 하는데 쓰는거야 널 줄려고 내가 만들었어…》하며 창수가 그것으로 문제 풀이를 해 보였습니다. 정말 문제는 재미 있게 풀렸습니다.

그날 저녁 반 학습 때에 동영이가 방정 식에서의 근을 구하는 응용 문제를 풀지 못해 애타하는 것을 보고 창수는 집에 돌아가 오래'동안 생각한 끝에 이런 좋은 것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동영이를 기쁘게 해 주고 싶어 어두운 것도 비 오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달려 왔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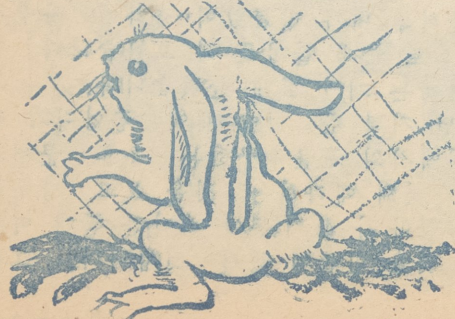
규률을 잘 지키지 않는 자기 동무 일룡이의 학습을 도와 주기 위하여 추운 겨울날 산에 올라 가 나무를 찍어다가 책상을 만들어 준 아동단원 영복이처럼…

그날 밤 창수가 돌아 간 뒤에 동영이는 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질 않았어요. (창수는 정말 고마운 아이야 그앤 자기 학습을 잘 할 뿐만 아니라 분단의 위엄도 저렇게 훌륭하게 해 낼려고 애 쓰거든…그런데 난 왜 자기 학습도 혼자 못하고 분단에 격징만 끼치나…) 동영이는 지난 날의 자기가 몹씨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나 창수의 모범을 따르리라고 굳게 마음 먹었지요.

그로부터 며칠 후에 반장 송훈이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분단 위원장 용택이를 찾아 갔어요. 동영이가 분단 토끼 기르는 일을 자기에게 맡겨 달라고 찾아 왔더라는 것이예요. 송훈이의 말을 들었을 때 용택이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 기쁨은 어느덧 다른 열성자들에게도 알려지고 그들은 한 자리에 모여 앉게 되였어요.

《동영이가 토끼를 맡으면 일이 잘 될거야.》

《그 앤 토끼 기르기의 명수거던…그 애네 집엔 돼지도 염소도 닭도 많지만 토끼만은 동영이가 책임을 맡고 있어.》

동영이가 처음으로 맡아 나선 과업이 잘 되여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열성자들은 그를 어떻게 도와 줄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의논들을 했지요. 그리고 동영이가 스스로 맡아 나선 이 자랑스러운 과업을 며칠 후에 가질 분단 총회에서 널리 동무들에게 알려 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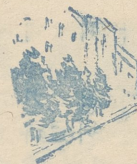
온천은 어떻게 생겨 났을가요?

온천이란 땅에서 나오는 더운 샘물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런데 온천이라고 말 할 때는 그 지방 년평균 온도 보다 높은 샘물을 가리켜 말하는데 우리 나라의 년 평균 기온은 4～14°C입니다)

더 자세히 말한다면 온천이라고 하면 물의 온도가 20～37도 까지를 말하며 37도 이상부터는 열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도～20도 까지의 약수를 랭천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온천은 어떻게 되여 생길가요?

땅 속에는 땅 우에서 스며 들어 간 많은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 속 깊은 곳은 온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속에 있는 물은 일정한 깊이에 까지 스며 들어 가면 막 끓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끓는 물은 높은 압력을 내면서 땅 속의 약한 곳레를 들면 틈 난 바위 사이로 흘러 나오게 됩니다. 끓였던 물은 땅 우로 솟아 나오면서 점점 식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솟아 나온 물의 온도에 따라 열천, 온천, 랭천등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천은 그 속에 많은 화학적 성분이 들어 가 있어 약수로 사람의 몸에 리롭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유명한 신천, 룡강, 주을, 양덕, 온양 온천,등을 비롯하여 수 십 개의 온천과 옥호동, 삼방 등 많은 약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온천과 약수들에는 휴양소, 정양소들이 설치되여 근로자들의 건강과 휴식에 리용되고 있습니다.

왜 도시에 나무를 많이 심을가요?

도시에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는 것은 거리를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먼지를 없애며 공기를 맑고 깨끗하게 합니다.

왜 그럴가요? 식물들은 공기 중의 탄산가스를 들여 마시고는 산소를 내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많은 곳에 가면 공기가 맑아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또한 거리에 나무들이 많으면 여러가지 소음(잡소리)을 막아 주며 우리들의 생활을 명랑하게 하여 줍니다.

우리들은 도시를 아름답게 해 주며 우리의 건강을 돕는 나무를 아끼고 사랑하며 더 많이 심읍시다.

(이야기)

잊을수 없는 옛 이야기

민 영 철　　　　그림 리 동춘

이것은 몇 해 전 속후 소년단원 야영소에서 있은 일이다.

야영이 시작된 첫 날 저녁 식탁에 모여 앉아 맛 있게 저녁 식사를 하던 최 숙자 동무가 갑자기 숟가락을 놓고 밖으로 나갔다.

《아니 저애가 웬 일일가?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그럴가?》

선생님은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어 곧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숙자는 머리를 떨구고 한동안 걷다가 백사장 소나무 밑에 펄썩 주저 앉았다. 그리고는 술렁대는 바다를 시름 없이 바라보며 어깨를 들먹이기 시작했다.

《너 왜 그러니? 어디 아프니?

뒤 따라 나온 선생님은 숙자의 어깨를 가벼이 흔들며 물었다.

《……》

숙자는 더욱 흐느낄 뿐 여전히 대답이 없다.

그 사이에 식사를 끝낸 동무들도 하나 둘씩 그를 찾아 나왔다.

《무슨 일이 생겼니?》

《얘, 울지 말어, 응.》

이렇게 얼마 간의 시간이 지났다. 숙자는 자기 가슴 속 깊이에 간직하고 있던 이야기를 시작했다.

× ×

숙자의 집은 개풍군 해서리에 있다.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 오며 이 고장에서 나서 잔뼈가 굵었다. 그의 할아버지 최금룡은 《상놈》으로 태여나 어린 때는 이 동네에 사는 백 지주의 심부름'군으로, 커서는 그 집 머슴'군으로 한 세상을 보냈다. 숙자의 아버지 최 민호도 역시 어릴 때부터 백 지주의 소몰이'군으로 일했고 숙자의 어머니도 그 놈 집에서 《행랑 어멈》으로 일했다.

백 지주네 집에서는 사람들을 마소처럼 부렸다. 그리고도 삯은 한번도 제대로 준 일이 없고 삼시 주는 밥마저 아까와 가마훑치가 아니면 찬 밥'덩이를 먹이였다.

그러나 왜놈의 《군청》이나 《면 사무소》 놈들과 경관놈들에게는 아끼는 것이 없었다. 백가는 사흘이 멀다 하고 그 놈들을 데려다가 고기며 떡이며 술을 실컨 처먹였다.

술판이 벌어지면 녹아 나는 것은 시중을 드는 머슴들 뿐이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였다. 이 날도 숙자 어머니는 숙자의 오빠 영길이를 업고 놈들의 술상을 차리느라고 소고기로 기름튀개를 만들고 있었다. 펄펄 끓는 기름 남비에서 건져 내는 기름튀개는 보기만 해도 먹음직한 데다가 그 고소한 냄새가 더 코를 찔렀다.

《엄마, 나 하나 줘! 응》

등에 업힌 영길이는 기름튀개를 먹겠다고 칭얼칭얼 조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아들을 생각해서 당장 하나 쥐여 주고 싶었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여우같은 주인 마누라가 사이'문으로 빤히 내다 보고 있었던 것이다.

《오냐, 이제 어머니가 해 주지, 해주구 말구!》

어머니는 아들을 달래였다.

《싫어, 저거 하나 줘 잉!》

《이건 남의 거야, 남의 물건은 손 대면 안 되지 응, 네 생일 날에 꼭 해 주마.》

어머니는 빈 약속이나마 이런 말로 달래였다.

그 날 밤 자리에 누운 어머니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부모를 일찍 잃고 삼촌 집에서 눈치밥으로 잔뼈가 굵어진 어머니는 어려서 숙자 아버지인 최 민호에게 시집을 왔다. 시집이래야 남의 머슴'군에게 왔으니 시집 온 지 15 년이 지났건만 이날 이 때도록 편히 쉴 날이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 고생을 꾹 참고 오직 영길이와 숙자만은 남의 집 자식 부럽지 않게 키워 보리라 마음 먹었다.

그러나 세상 일은 뜻 대로 되지 않았다. 잘 키우기는 고사하고 삼시를 제대로 먹이지 못하여 겨울이면 의례히 점심 한끼는 건느군 하였다.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생각하는 어머니의 두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두 줄기 눈물이 쭈루루 흘러 내렸다.

×

어느덧 영길이의 생일 날은 왔다. 영길은 아침부터 기름튀개를 달라고 보채였다. 어머니는 이제 곧 가져 온다고 얼리고는 백가네 집으로 나갔다.

이 날 마침 주재소 수석(우두머리)이 찾아 와서 백가네 집에서는 술판이 벌어졌다.

저녁에 숙자 어머니는 부엌에서 술상을 거두다가 먹다 남은 기름튀개를 보았다. 남은거래야 모두 세 개였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거라도 영길이에게 갔다 주려고 종이에 쌌다.

바로 이 때

《그건 무엇을 주어 싸는 거야?!

일은 안 하고 밤낮 무엇을 싸다가 제 새끼 먹일 궁리만 하고, 그럴라면 내 눈 앞에서 썩 없어져라. 보기 싫다.》

사이'문 사이로 주인 마누라의 앙칼진 목소리가 튀여 나왔다.

어머니는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는 공연한 짓을 했다고 생각하였다.

《주인 마님도 너무 하십니다. 제가 언제 밤낮 무엇을 싸 가지고 다닙디까? 오늘은 영길이 생일인데 하도 기름튀개를 먹겠다고 졸라대기에 먹다 남은 것을 하나 싸다 줄려고 해서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도 억울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무엇이 어쩌고 어째! 남은 것은 모두 거두어 개나 돼지를 줄게지, 창숙이 동내의가 없어진 것두 그러고 보니 네 작간이로구나.》

주인 마누라는 더욱 노기등등해서 야단이였다.

《하늘이 다 내려다 보고 있소, 딴 사람이 빨래하러 가서 잃어 버린 것을 왜 하필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요. 내가 가져 가는걸 봤수? 봤으면 본대로 말해 보우!》

억울한 도적의 루명까지 쓰게 되니 숙자 어머니도 화가 날 대로 났다.

어머니는 마음 대로 하자면 그년의 머리채를 끌어서 실컨 패 주고 싶었으나 뒤'일이 걱정되여 꿀꺽 참았다.

《더럽다. 네집 물건은 거저 줘도 안 가지겠다.》

더는 참을 수 없어 어머니는 쌌던 기름튀개를 내동댕이치고는 집으로 달려 왔다. 집에 오니 찢어진 방문 앞에서 기운 없이 졸고 있던 영길이가 《엄마, 기름튀개》 하고 치마'자락에 매달렸다. 어머니는 그만 설음이 북바쳐 올라 땅'바닥에 쓰러져 느껴 울기 시작했다.

《엄마 왜 울어 응?》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어머니의 품에 와락 안기며 영길이도 따라 울었다.

한편 백가네 집에서는 별의별 욕을 다 퍼부었으며 떠들석했다.

그래도 속이 풀리지 않았던지 주재소에 가서 영길이 어머니가 자기 집 동내의를 훔쳤다고 일러 바쳤다. 가재도 게 편이라고 주재소에서는 그 날 밤으로 어머니를 붙들어 갔다.

어머니는 기름튀개 세 개로 하여 도적이라는 《죄》를 쓰고 경찰서에 끌려 가 갖은 고문을 겪었다.

한달만에 경찰서에서 놓여 나온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영길아, 이 에미를 원망하지 말아라. 돈 없고 권세 없는 우리를 버리는 이 세상이 나쁘다. 그러나 너는 이담에 크거들랑 아버지를 잘 모시고 또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이 에미의 원쑤를 꼭 갚아다오…》

약 한첩 못 써보고 1 년 동안이나 자리에 누은 채 앓던 어머니는 이 한 마디를 남기고 끝내 돌아 가시고 말았다. 이 때 영길이는 네 살이고 숙자는 겨우 두 살이 였다.

구차한 살림이나마 서로 믿고 의지하여 살아 가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린 것들을 잘 키워 내자고 애를 빠득빠득 썼다. 그러나 그놈의 세상에선 단 하루도 빛을 볼 날이 없었다.

왜놈들이 망한 뒤에는 빛을 보고 살 줄 알았더니 왜놈보다 더한 승냥이 미국놈이 들어 오고 백가놈은 이 승냥이들과 한패가 되여 더욱 농민들을 못살게 굴었다.

고생으로 한 평생을 지내던 그의 아버지는 1950년 전쟁 때 야수 같은 미국 승냥이들에게 학살되였다. 이리하여 숙자네 남매는 고아로 되였다.

개성 지구가 해방되자 당과 정부에서는 의지할 곳 없는 이들에게도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뻗쳐 주었다 당의 품에 안긴 이들은 마음껏 공부하였다.

최우등생이며 소년단 위원장인 숙자는드디여 중앙 소년단원 야영소에까지 추천되여 온 것이다. 야영소에서는 소년단원들에게 끼마다 맛 있는 각가지 음식을 주었다.

숙자는 첫 날 밤 식당에서 주는 기름튀개를 먹으려니 그 전에도 늘 먹어 오긴 했지만 이런 행복한 야영소에까지 와서 그걸 먹자고 보니 지난 날 그로하여 억울하게 돌아 가신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하여 목에 넘어 가지 않았던 것이다.

× ×

숙자의 말을 듣고 있던 동무들은 그의 어머니를 죽인 악독한 지주와 왜놈들에 대한 증오심에 저도 모르게 두 주먹들을 틀어 쥐였다. 그리고 자기들을 오늘 이처럼 행복에로 이끌어 주고 사랑하여 주는 김 일성 원수님과 조선 로동당의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 더욱 열성을 낼 것을 굳게 굳게 속다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란이 선 두 분단

—평양시 서성구역 상신 중학교 13 분단 《모범 분단》에서—

본사 기자 최 옥 선

분단 위원장인 옥 경희는 복도를 들어서려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분단 동무들이 남자 분단인 12 분단 동무들과 와짝 떠들며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의 분단 책상을 왜 가져 가?》 쨍쨍한 정숙이의 목소리가 울리는가 하면 《너희들은 왜 그렇게 심술궂게 노니》하고 웨치는 종부의 목소리도 크게 들려 왔다.

《너희들 교실이 깨끗하다고 칭찬 받는 건 본래 좋은 책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우리에게 너희 책상 같은 걸 줘 보지.》 《우리도 좋은 책상에 좀 앉아 보자꾸나.》

남학생들은 능글맞게 치근치근 달려 들었다.

13 분단 녀학생들은 《심술 부리지 말고 어서 돌아 가라》고 교실 출입문을 등지고 떡 버티여 섰다.

그러나 12 분단에서도 힘 세기로 이름난 권오가 쑥 나서며 녀학생들의 코 앞에다 주먹을 내밀었다.

《어서 문 열고 책상 내놔.》 그의 틀어쥔 주먹과 치껴 뜬 눈을 마주 보는 녀학생들은 주춤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 섰다. 방금 무슨 일이라도 터질상 싶었다. 경희는 이 광경을 보다 못해 《너희들 왜 이렇게 싸우니…? 한 학년이구 또 아래 웃교실에서 생활하면서 이게 뭐니》하고 타이르는 말씨로 권오와 녀학생들 사이에 끼여들었다.

이 때 12 분단의 분단 위원장 주 현재가 달려 왔다.

《너희들 남의 분단에 와서 이게 무슨 행동이냐?》 현재의 말에 남학생들은 비실비실 흩어졌다.

《경희야! 미안해》 권오의 팔을 끌고 가는 현재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달아 올랐다. 몹시 부끄럽고 안타까운 모양이였다.

교실에 들어 온 13 분단 동무들은 12분단 동무들이 나쁘다고 떠들석했다.

《우리가 니스 칠까지 한 책상을 무슨 권리로 가져 간단 말이냐?》

《화분의 꽃을 뜯어 놓구 꽃병을 깨뜨린 것두 다 그 애들이 한 것이야.》

《우리가 모범 분단이 된 후부터 더 심술을 낸단다.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마다 모범 분단이라고 뽐내지 말라고 하면서…》

12 분단과 13 분단은 같은 학년이고 교실도 나란이 있는 분단이다. 지난 날에는 두 분단에 다 같이 애를 먹이는 아이들이 있어서 학교에서도 늘 걱정 하는 분단들이였다.

그런 때 분단 위원장이 된 경희는 분단 생활에 취미를 못 붙이고 학습을 게을리 하는 몇 아이들을 반 년 동안이나 계속 집에 찾아 가서 학습도 같이 하고 일도 도와 주었다. 학교에 와서는 흥미 있는 박물관, 전람관 견학, 행군, 등산, 연예 발표회 등을 자주 가져서 그들이 분단에 마음을 붙이도록 있는 힘을 다 했다.

이렇게 분단을 이끌려고 애 쓰다가도 마음 대로 되지 않아 눈물을 흘린 일도 많았다.

그러나 경희는 분단 열성자들과 힘을 합해 끝끝내 자기 분단을 모범 분단으로 이끌어 올리고야 말았다.

동무들은 떠들석해서 12 분단 동무들이 한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지난 날을 돌이켜 보는 경희에게는 《12 분단 위원들이 얼마나 애를 태울가…》하는 생각이 들며 동정이 갔다.

이 날 공부가 끝난 뒤 마침 혁명 전통 연구 모임 준비를 위해 분단 열성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였다.

《애들아! 이번에 우리 김 충진 아저씨의 회상기를 가지고 모임을 가지는 것이 어떻니?》

《응 그렇게 하는게 좋겠어. 오늘 아침 12 분단 동무들과 싸우는 것을 보고 나는 많은 것을 생각했어. 우린 지금까지 너무 자기 분단만 위한 것 같애.》

《참말이야! 혁명 동지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 충진 아저씨와 같은 정신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우리는 12분단 동무들과 싸우지 않고 도와 주었을 거야.》

열성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열성자들부터 모범이 되여 12 분단을 돕자고 의논하였다.

그들은 먼저 교실이 늘 어지럽다고 말을 듣는 12 분단 교실을 자기들의 힘으로 깨끗이 꾸며 주자고 했다.

분단 위원장인 경희는 자기 집 꽃밭에서 제일 고운 꽃을 꺾어다 꽂아 주었고 분단 벽보 주필인 리 향실이는 풍경화를 가져다 달아 주었다.

열성자들의 이런 모범을 따라 13 분단 동무들은 화분이며 청소 도구를 갖춰 주며 일요일이면 남 몰래 나와 윤이 나게 마루 바닥을 닦아 놓았다.

그러나 12 분단의 몇몇 아이들은 《너희들 칭찬 좀 받아 볼려구 우리 분단에 화분이랑 가져다 놓았지? 도루 가져 가!》하고 소리쳤다.

이런 때마다 13 분단의 동무들 가운데서는 《그런 아이들은 아무리 도와 줘야 몰라》 하고 마깝지 않게 여기는 아이들도 있었다.

얼마 후 분단에서 항일 투사 김 충진 아저씨에 대한 회상기 연구 모임을 가지게 되였다.

열성자들은 먼저 일어나 김 충진 아저씨가 자기 조직과 동지들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12 분단을 돕는다고 하고 있지만 자기 분단처럼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어. 우리는 더구나 모범 분단인 것만큼 자기 분단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전체 학교 동무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하고 말했다. 이 때 경희가 벌떡 일어나며 《동무들 말이 옳아. 우리에게 충진 아저씨와 같은 동지애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우리 교실을 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그 교실에 가서 또 꾸리면 될 게 아닌가…》 하고 말했다.

그러나 동무들은 말 없이 윤이 나는 책상, 청소할 때 소리 나지 말라고 다리 밑에 고무까지 댄 책상을 어루만져 보고 거울 같은 마루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회상기 연구 모임이 다 끝날 때까지도 동무들은 교실을 내 놓기 아수해 했지만 분단

위원장과 손을 잡고 선생님을 찾아 가 자기들의 뜻을 이야기했다.

선생님은 《모범 분단이 다르긴 다르구만!》하고 칭찬하시는 것이였다. 기쁨을 안고 자기 교실로 돌아 온 12 분단 동무들은 청소 도구며 꽃병, 아름다운 화분이며 풍경화 모든 것을 그냥 두고 책가방만 가지고 나와 학급표를 바꾸어 달아 놓았다.

며칠이 지난 후 단 위원회는 지리 실력 경연 대회를 조직했다.

13 분단 동무들은 방과 후이면 지도를 펼쳐 놓고 지리 토론들을 하였다.

하루는 13 분단 교실을 슬며시 들여다 보던 12분단 동무들이 《너희들에게 선물로 깎아 왔다. 이것 받아》하고 멋 있게 깎은 지도 막대기를 내놓는 것이였다.

지리 공부를 하던 13 분단 동무들은 우루루 몰려 와 이 손에서 저 손으로 막대기를 옮겨 가며 고맙다고 몇 번이고 감사를 하며 《12 분단에선 지리 학습을 어떻게 하고 있니?》 하고 물었다.

《우리야 뭐… 너희들이나 잘 준비하라.》 12 분단 동무들은 맥 없이 말했다.

《아니야! 너희들 우리하구 지도 찾기 놀음하지 않겠니?》 하고 경희가 현재에게 이야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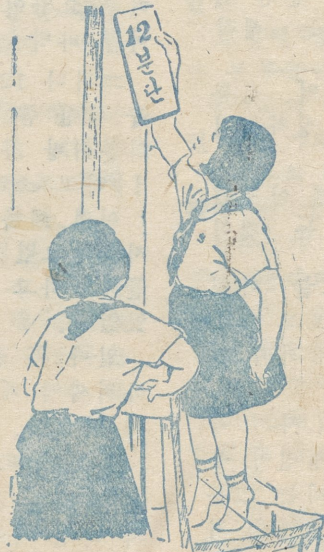
13 분단 동무들이 하고 있는 지도 찾기 놀음은 나라 이름과 지방 이름, 지하 자원의 분포 등을 학습하는 데 아주 좋은 유희였다.

교실을 바꾼 이후 지난 날 자기들의 행동을 깊이 뉘우친 12 분단 동무들은 경희의 말에 더욱 감격하는 것이였다.

이들 두 분단은 방과 후면 한데 모여 지도 찾기 놀음으로 배운 지식을 익혔다. 13 분단 동무들은 더 열심히 지리 공부를 해다가 지도 찾기 놀음으로 12 분단 동무들을 도왔다.

이리하여 지리 실력 경연에서는 두 분단이 다 우등 이상의 성적을 거두어 칭찬을 받았다.

이 후부터 12 분단 동무들과 13 분단 동무들은 자주 한 자리에 모여 앉아 학습토론도 하고 분단 사업 경험도 나누며 분단을 꾸려 나갔다.

이처럼 어깨 겯고 나가는 두 분단은 나날이 튼튼한 집단으로 자라 오늘은 학교의 모든 분단들이 이들의 모범을 본받아 서로 돕고 받들며 학교를 아름답게 꾸려 나가고 있다.

-만화-

◇ 영민이의 꾀 ◇

보이지 않는 통신원

《수수께끼의 주인공》

어느날 나는 함남도 단천군 복천 중학교에서 매일처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생겨 난다는 소문을 듣게 되였어요. 그 《수수께끼》란 남 몰래 교실 청소를 하는 아름다운 일이 매일 매일 생겨 나는데 누가 하는일인지 알수 없다는거예요.

난 소년단원들이 찾아 내지 못하는 그 《수수께끼의 주인공》을 찾아 내려고 그곳으로 달려 갔지요.

내가 이 학교에 다다른 것은 먼 동이 훤이 트기 시작한 첫 새벽이였어요. 학교는 고요하고 인기척 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든든히 속보판 뒤에 숨어서 망을 보기로 했어요.

아니나 다를가… 좀 있노라니까 웬 녀자 아이 하나가 현관으로 가만히 들어 서는 것이 보였어요. 그 아이의 앞 가슴에는 《모범 분단》 휘장이 빛나고 있었어요.

《옳다! 이애가 바로 그 수수께끼의 주인공인가부지…》 이렇게 생각한 나는 어느덧 속보판 뒤에서 나와 그 아이의 뒤를 살금살금 따르기 시작 했지요. 복도를 한참 걸어 간 그 아이는 이윽고 11분단 교실로 들어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아이는 아마 자기의 책상인듯 한 반질반질 윤기 도는 책상 속에 책가방을 풀어 넣더니 교실 청소를 시작했어요.

창문을 모두 열어 제낀 다음 마루 바닥을 물걸레로 깨끗이 닦고 책상 걸상을 나란히 제워 놓았어요. 그리고 마른 걸레로 책상을 깨끗이 닦았어요. 그방 청소를 끝낸 다음 그 아이는 또 다른 방 청소를 하는 것이였어요.

나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아이 가 두번째 교실 청소를 끝내고 세번째 교실에 들어 갔을 때였지요.

별안간 방문을 열고 들어 서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애자야! 너였구나!》

방금 들어 선 아이는 깜짝 놀랜 소리를 올리며 애자라는 아이에게 달려 가 그의 두 손을 꼭 잡았어요.

얼마 후에 나는 이 학교 소년단원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나중에 들어 온 아이는 원 순자이며 애자가 남 몰래 해 놓은 모범을 따라 그날 아침 교실 청소를 하려고 그도 일찍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였지요.

이만 하면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가 풀린 셈이지요.

왜 그럴가요?

사이다 병의 마개를 열면 왜 거품이 오를가요?

사이다라는 것은 시롭을 탄산수에 탄 것입니다. 그러면 탄산수란 무엇일가요

탄산가스(CO_2)와 여러 기체들은 압력이 높고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물 속에 많이 용해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성질을 리용하여 기계의 힘으로 낮은 온도에서 높은 압력을 가하여탄산가스를 물에 용해한 것을 탄산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사이다 병의 뚜껑을 열면 《쉬 하고 거품이 일며 사이다가 우로 솟아 오르는 것은 무엇 때문일가요?

사이다는 높은 압력을 가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사이다 병 안은 병 밖의 기압보다 훨신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 뚜껑을 열면 사이다는 기압이 낮은 병 밖으로 솟아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학자이며 열렬한 애국자인 정 다산 선생

최 길 성

8월 5일은 18 세기 말 19 세기 초 우리 나라의 대 학자이며 위대한 과학자이며 열렬한 애국자인 정 다산(이름은 약용) 선생 탄생 200 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 다산 선생은 1762 년 8 월 5 일 경기도 광주 마재(오늘의 양주 땅)에서 탄생하시였습니다.

선생은 1836 년 4 월 7 일 75 세의 생애를 끝 마칠 때까지 자기의 일생을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학문 연구 사업에 바쳤습니다.

선생은 어느 한가지 학문에만 재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문학, 력사, 경제, 수학, 물리, 의학 등 못하는 학문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선생은 《백과 사전》이라고 하리만큼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과학 연구 사업에 모든 힘을 바쳤으며 당시 인민을 못 살게 구는 봉건 통치배들을 미워하며 그를 반대하는 글을 썼습니다.

정 다산 선생은 뛰여난 재주가 있었으므로 일찌기 어린 시절부터 이름을 떨치였습니다.

선생은 산 좋고 물 맑은 자기의 고향을 몹씨 사랑하였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몸도 힘껏 단련하였습니다. 선생은 세 살 때에 벌써 《천자문》이라는 한문 책을 아주 훌륭하게 외웠다고 합니다.

선생은 남보다 뛰여난 재주를 가진 데다가 동무들 보다도 한층 더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선생은 소년 시절부터 장래에 훌륭한 사람이 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힘껏 일 하겠다는 결심을 굳게 다지고 그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아버지에게서 글을 배우는 어린 시절의 정 다산 선생

그리하여 벌써 일곱살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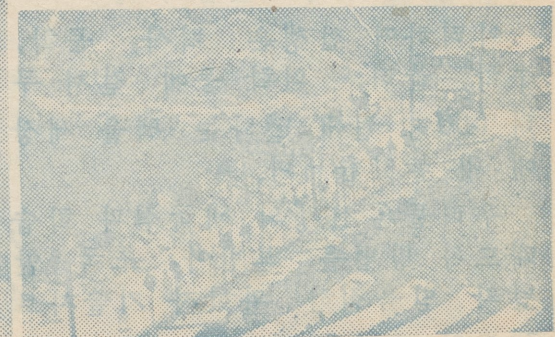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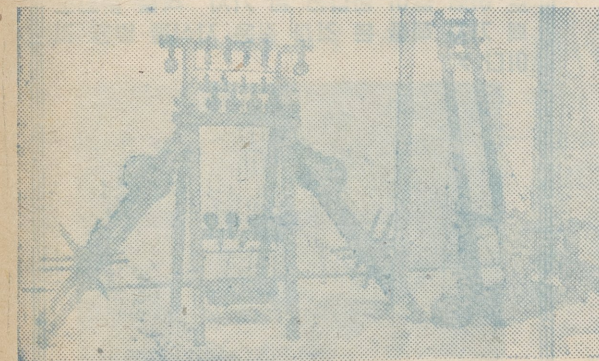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웠다네
멀고 가깝기가 다른 까닭이지요》라는 훌륭한 시를 지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 시는 고향인 마재를 노래한 것인데 큰 산이 작은 산에 가리워 보이지 않는 것은 큰 산이 작은 산보다 먼 데 있기 때문이라는 리치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선생이 얼마나 영리하였는가를 그대로 말해 줍니다.

선생의 아버지 정 재원 선생은 아들의 이와 같은 뛰여난 재주를 대단히 자랑하시면서 《이 아해의 머리가 명철하고 지혜가 대단히 밝으니 장래에 반드시 천문, 산수 등의 과학을 잘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선생은 아버지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장차 훌륭한 과학자가 되리라는 결심을 품고 공부에 있는 힘을 다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선생은 소년 시절부터 모든 것을 관찰할 때에 무심히 보지 않고 그 리치를 알기 위해 실험을 거듭하며 지식을 익히고 또 익혀 나갔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꾸준히 연구하고, 관찰하고, 학습한 결과 10 세가 되기 전에 벌써 《삼미집》이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았으며, 16 세 때에는 18 세기 전반기의 유명한 과학자였던 리 익 선생의 선진적인 사상을 리해하게 되였으며, 1783년 22 세 때에는 《성균관》이라고 하는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선생은 소년 시기 특히 산수 공부를 좋아 하였으며 한 가지 지식을 연구해도 그것을 알아 낼 때까지 실험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선생은 31 세 때에 마침내 기중기를 발명하게까지 되

정 다산 선생이 설계한 기중기와 한강의 배'다리 모형

다산 정 약용 탄생 200 주년

였습니다.

선생은 기중기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물리와 수학을 무엇보다도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활차의 실험을 거듭하여 1792 년에 드디어 훌륭한 기중기를 만들어 냈으며 이를 수원성 건설 공사에 리용하여 나라에 많은 리익을 주었습니다.

선생은 이 기중기의 제작 원리를 널리 보급시키기 위해 《기중도설》이라는 책을 세상에 내 놓았습니다.

선생은 또한 농민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농민들을 착취하는 지주, 봉건 통치배들을 증오하였으며 토지는 밭갈이 하는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선생은 이 밖에도 자연 과학의 지식을 널리 우리 나라에 보급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은 의학을 연구하여 어린이들의 홍역을 예방하는 우두법을 널리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선생은 력사, 문학, 수학, 물리, 의학 등에 걸쳐 무려 500여 권에 달하는 책을 세상에 내 놓았습니다.

우리들은 선생의 애국심과 학습 태도와 방법을 본받아 조국 앞날의 믿음직한 과학자 기술자로 꾸준히 배워 나갑시다.

(정 다산 선생이 남긴 글 중에서)

《참다운 학문이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인민을 편안하게 하며 외적을 물리치고 국가 재정을 넉넉히 하며 문무에 능통하여 무엇이나 담당하지 못 하는 것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장과 글'귀를 찾아내거나 글'자에 대한 주석이나 하고 절하는 절차를 익히는 것만으로 어찌 학문이라 할 수 있겠는가.》

＊ ＊

《나는 조선 사람이다. 그러므로 조선적인 시를 짓기를 즐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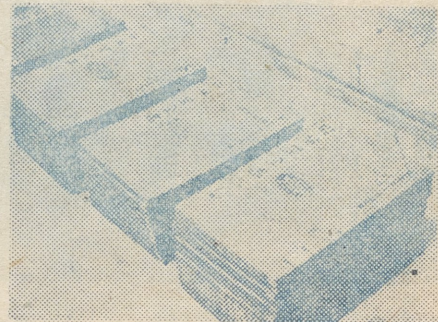
＊ ＊

《1년 360일이 모두다 우리들이 학문을 닦으며 국가 사업에서나 개인적인 일에서나 자기가 할 바를 다 해야 할 날이다. 다시 말하면 360일이 다 어느 날 할 것 없이 좋은 날이며 다 중요한 날이다.》

＊ ＊

《나는 젊었을 적에 새해를 맞을 때마다 반드시 1년 동안에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글을 뽑아 베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천하였다.》

＊ ＊

《나는 이 몇해 동안에 독서란 부질 없이 읽기만 하여서는 하루에 천 백번 되풀이 한다고 하더라도 읽지 않은 것과 마찬 가지라는 것을 알았다. 무릇 독서할 때에 한자라도 그 뜻을 잘 모를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세심히 연구하여 그 근원을 밝히며 이에 대한 자기 견해를 써 두어야 한다. 일상적으로 이와 같이 한다면 한 가지 책을 읽고도 백 가지 책을 본 것과 같은 지식을 얻을 것이다.》

(정 다산 선생의 작품 중에서)

송충이

그 때 아니 보았더냐, 천관산 솔숲을
천 그루, 만 그루 온 산을 덮었더이다.
아름드리 고목들이 울울창창 들어 섰고
돋아 나는 어린 솔도 고히고히 자랐더니.

하루'밤 모진 송충이 떼 온 산에 퍼져 나와
누에 뽕 먹듯 모조리 먹어 치울 줄이야!
추악한 새끼 송충이 색갈도 거무티티
누런 털, 붉은 무늬 자랄수록 흉칙스러워.

바늘 같은 잎을 갉아 진맥을 말리더니
껍질과 살마저 다 파 먹고 줄기만 남기누나
솔은 말라 들고 가지마저 움직이지 못 한다.
솔이여! 그대 어찌 그냥 서서 죽고 마느냐

병든 줄거리만 서로 마주 서 있구나
시원한 바람, 짙은 그늘 다시는 있을 손가
솔이여 그대 태여 날 때 큰 뜻이 있었으리
사시장춘 푸르러서 한 겨울도 몰랐어라

사랑과 은혜 받아 나무들 중 으뜸이였더니
하물며 저 송충이 따위와 영광을 다투었으랴!

한 때 대궐 전당이 썩어 무너질땐
긴 들보, 큰 기둥으로 집체를 떠 받들었으며
한 때에 섬 오랑캐 이 나라에 달려 들제
판옥선, 거북선 되여 원쑤를 쳤더니라
송충이여! 네 어찌 이대도록 갉아 먹어 죽이느냐
내 말문 막히여라! 격분에 피끓어라!
어찌면 우뢰와 벼락, 도끼 얻어 내여
네놈들의 무리들을 모조리 쓸어다가
이글대는 큰 화덕에 처 넣고 말리라

———◇———

이 시는 송충이에 비유하여 인민들을 압박하고 착취하는 봉건 통치배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심을 나타 내고 있다. (편집부)

재담

양코배기를 몰아내자

오은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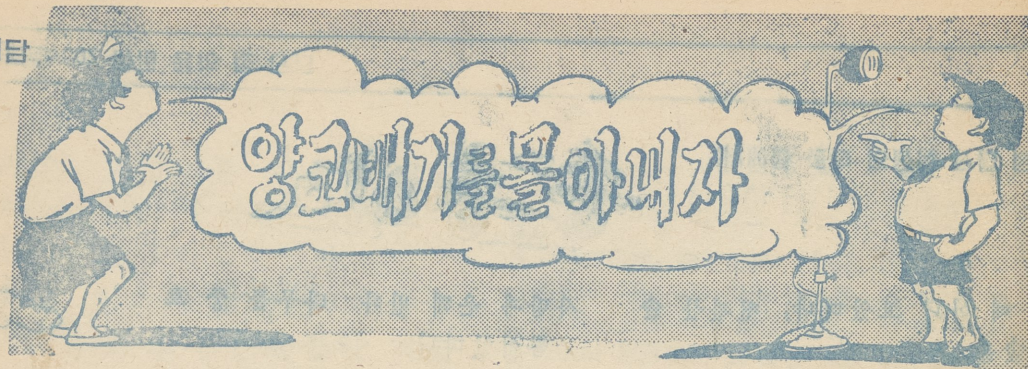



그림 최종순

갑 너 미국놈의 코를 어째 양코라고 그러는지 아니?

을 몰라.

갑 그것두 몰라?

을 그래 어째 양코라고 그러니?

갑 양키의 코니까 양코라고 그러지 뭐 허허허…

을 오라, 허허허… 그런데 그 미국놈들은 어찌문 그렇게두 뻰뻰스러우냐?

갑 코가 높으니까 뻰뻰스럽지 뭐!

을 코가 높아서?

갑 제가 잘난척 해서 뻰뻰스럽게 구는 놈을 보고 <코가 높아서 그런다>고 하지 않니.

을 음, 그렇지, 하여튼 그놈의 양코를 눌러 놔야 할게 아니냐!

갑 암, 아주 콱 눌러서 납짝코를 만들어야지.

을 이 세상에서 제일 미운 놈이 미국놈이라니까!

갑 그러기에 아이들이 고무줄 넘기를 할 때도 (고무줄 넘기를 하는 시늉을 하며 노래를 부른다)
《미국놈의 대가리는 양코 대가리 외깍데깍 굴어가다 코가 깨진다》하지 않니.

을 그런데 요전에도 강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던 조선 사람을 총으로 쏴 죽였다더구나.

갑 그놈들은 사람을 쏴 죽이는 것을 하나의 심심풀이로 알고 있는 놈들인데 뭐.

을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그 미국놈을 붙잡아 가지고(어른의 목소리로)
《야 이놈아, 어째 공연한 사람을 쏴 죽였어?》 그러니까 그 놈이 《오우! 꿩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갑 《야, 이 뻰뻰스런 놈아, 물 속에 꿩이 어떻게 들어 가니?》

을 (계속 미국놈의 시늉을 하며)
《오우! 물 속? 아, 물 속에 있었기 때문에 물'고기인 줄 알았습니다.

갑 《야, 이놈아, 물 우에서 고기를 낚고 있었는데 물'고기인 줄 알았어? 이 자식아!》

을 (역시 미국놈의 시늉을 하며 당황하여)
《아, 아, 물 우에 있었다? 네— 물 우에 있었기 때문에 물오리인 줄 알았습니다.》

갑 《죽일놈의 자식… (《을》의 멱살을 틀어 쥔다)

을 아 이거? 나 보고 왜 이래?

갑 음? 음—(틀어 쥐였던 손을 놓으며) 원 그놈들을 그냥 둘 수가 있어야지!

을 그 뿐인 줄 알어? 아, 길을 지나 가시던 늙은이에게 개를 추겨서 물어 뜯게 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

갑 엊그제도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을 또?

갑 그럼, 길'가에서 놀고 있는 어린 아이에게 개를 추겨서 물어 뜯게 하구는 (미국놈의 목소리로) 《우리 개 이겨라, 우리 개 이겨라!》 응원까지 하더래.

을 원 저런! 그래서?

갑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하고 달려 들어서 그 개를 때려 죽이고 다음엔 미국놈을 붙잡아서 뚜들겨 패려는데 미군 헌병놈이 달려 오더니 《오우! 이거 무슨 짓입니까? 우리 미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을 《뭐? 하나님이라는 게 뭐 말라 죽은거야, 엉 이놈을 당장 잡아 죽여야지!》(팔을 걷고 나선다)

갑 (미국놈의 시늉을 하며)《오우! 너무 흥분하지 마시요. 우리 이 미국 사람 헌병대에 데리고 가서 처벌하겠습니다.》 그리곤 데리고 갔다지 뭐.

을 그래 데리고 가서는 어쨌나?

갑 미군 헌병놈이 그놈의 따귀를 딱! 하고 때리더래.

을 정말 때려?

갑 그럼, 그러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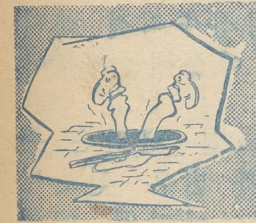
을 응.

갑 (미국놈의 목소리로)
《개를 추겼으면 단번에 물어 뜯어 죽게 해야지 그게 뭡니까?
당신 훈련 잘 못 받았습니다. 바보 같은 자식!》 딱!
(때리는 시늉)

을 엉? 사람 죽이는 훈련 잘 못 받았다고? 원 죽일놈들…

갑 그 뿐이 아니다. 요 며칠 전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말이야

을 음,

갑 길을 가던 어린 아이를 자동차로 따라 가서 깔아 죽이고는 (미국놈의 목소리로)《오우! 우리 미국 사람 조선의 어린애를 귀여워 합니다. 나 이 어린애 깔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애가 자기 발로 자동차 밑에 기여 들어 와서 치여 죽었습내다.》

을 아니, 그래 그놈을 그냥 두었단 말이냐?

갑 그냥 둘 리가 있어. 한 사람이 이 말을 듣더니 후다딱 부엌으로 뛰여 들어가 펄펄 끓는 물을 떠 가지고 나와서 그놈의 머리에다가 콱 들씌웠다지뭐.

을 야! 그거 정말 잘 했네! 그래서?

갑 그러니까 그놈이 (펄펄 뛰면서) 《오우 까뗌! 아 뜨거! 오우 까뗌! 아 뜨거!》(너무 급해 맞아서 뱅글뱅글 맴 돈다.)

을 《허허허… 그 꼴 정말 볼만하구나!》

갑 (미국놈의 목소리로) 《뭐라고? 까뗌! 내 머리깔 모조리 다 문질문질 빠졌습내다. 내 대가리 삶은 돼지 대가리 되였습내다》

을 《허허허…잘 됐어, 잘 됐어.》

갑 (역시 미국놈의 목소리로) 《뭐가 잘 됐단 말입내까? 아이구 나 나 죽습내다. 당신 어째 내 머리에 펄펄 끓는 물 뒤집어 씌웠습내까? 앙?》

을 (미국놈의 흉내를 내며) 《오우, 나 뒤집어 씌우지 않았습내다. 내가 끓는 물 던지는데 당신이 거기에 머리를 들여 밀었습죠. 허허허…》

갑 《오우! 나 죽습내다—》

갑, 을 허허허……

을 그래, 그 다음엔 어쨌니?

갑 그 다음엔 그놈이 권총을 빼들고 아무나 막 닥치는 대로 쏴 죽이려구 날쳤다지 뭐.

을 그래서?

갑 그래서 한 애가 <헬로, 미군 장교 나으리, 당신께 뜨거운 물 들씌운 그 사람 숨은 데를 내가 아르켜 드리죠》 그리고는 그놈을 하수도 구멍 있는 데로 데리고 가서 그 안에 들어 갔다고 그랬다지 뭐.

을 그래서?

갑 그러니까 그놈이 하수도 구멍에 목을 쓰윽 들이 밀고 권총을 막 쏘드라는 거야. 그래서 때는 이 때라고 그놈의 궁둥짝을 축구뽈 차듯 뻥허구 차 넣었다지 뭐.

을 호호호… 그래 어떻게 됐니?

갑 어떻게 되긴…영낙 없는 폴앙이 됐지 뭐,

을 하하하…그래 그놈이 죽겠다고 날쳤겠구나?

갑 날친긴 뭘 날쳐, 좋다구 땐스만 하더래,

을 뭐? 땐스는 왜?

갑 발버둥을 치더란 말이야 허허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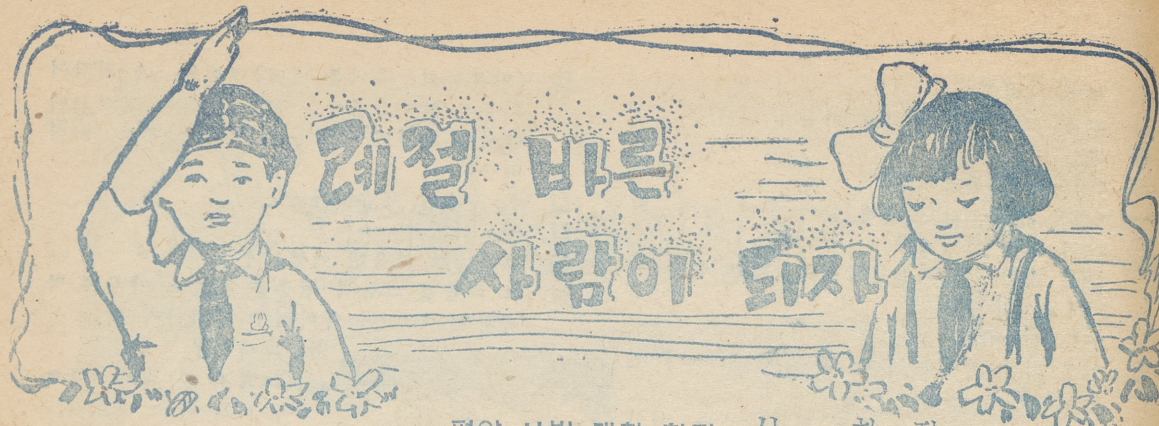
을 오라 하하하…하여튼 미국놈들을 우리 조선 땅에 그냥 두고는 우리가 한시도 맘 놓고 살 수가 없지 뭐.

갑 그러니까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우선 미국놈들을 조선 땅에서 태평양 저쪽으로 차 던져야 한단 말이다.

을 암 그래야지!

일동 (노래를 부르며 퇴장한다)
《미국놈의 대가리는 양코 대가리 뜨거운 물벼락에삶은 대가리 태평양 바다속에 처넣어 버리자 제놈들의 소굴로 쫓아 버리자!》

— 끝 —

례절 바른 사람이 되자

평양 사범 대학 학장 신 화 진

어떤 동무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인사나 잘 하는 것이 례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례절이 밝고 례의 도덕을 잘 지킨다는 것은 일상 생활에서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겸손하고 인사성이 밝으며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태도 등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 정신이 꽃 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례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선 인민은 누구나 로동을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천리마를 탄 기세로 내닫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들 속에서 꽃 피고 있는 이러한 공산주의적 례의 도덕은 결코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선 인민은 동방에서 가장 례의가 밝은 인민이였으며 특히 우리 인민의 례의 도덕은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에 더욱 빛났습니다.

항일 빨찌산 투사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동지를 아끼고 사랑하며 동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가 앞장 서 싸우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도 인민의 재산에 털끝만치도 손을 대지 않고, 가는 곳마다에서 로인을 존경하고 어린이들을 사랑하여 주는 등 공산주의적 례의 도덕을 지키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례의 도덕은 바로 여기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항일 빨찌산들처럼 살며 일하며 학습하는 고귀한 품성을 배우고 본받아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의 일상 생활에서 그대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례절 바른 사람은 먼저 자기의 몸을 깨끗이 거두며 몸차림을 단정하게 하는 데서부터 나타납니다.

례절은 우선 가정에서부터 지켜야 합니다.

부모에게 존경어를 쓰며 부모가 어디 갔다 오시면 일어 서서 맞으며 《인제 오십니까?》하고 인사를 하며, 짐을 들고 오실 때는 그것을 받아서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계시는데 자리에 눕거나 좋은 음식이 생겼을 때 부모에게 먼저 드리지 않고 자기가 먼저 먹는 것 등은 모두 다 례절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말씀을 하실 때 조용히 들으며 어른들의 말을 막거나 떠들지 말며 모든 행동과 태도에서 겸손하고 친절해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도 이러한 행동과 태도로 마을 어른들을 대하며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과 동무들을 대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은 동무들 사이에도 서로 례절을 지켜야 합니다. 동무를 만났을 때에는 서로 인사를 하며 학교에서 공부하며 놀 때에도 서로 도우며 친근하게 지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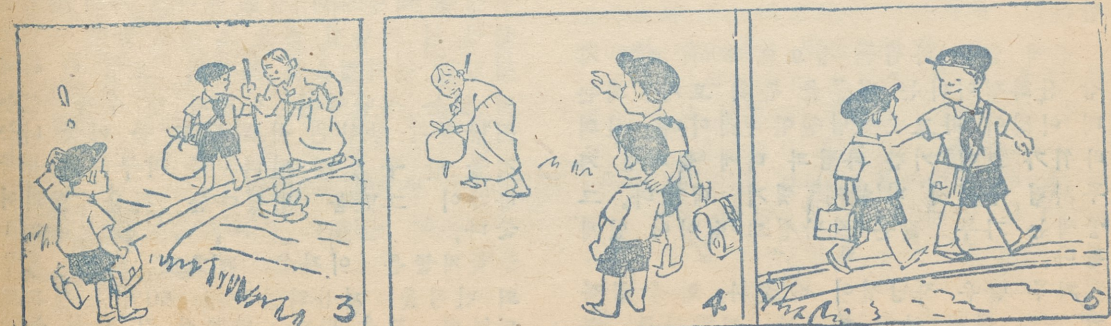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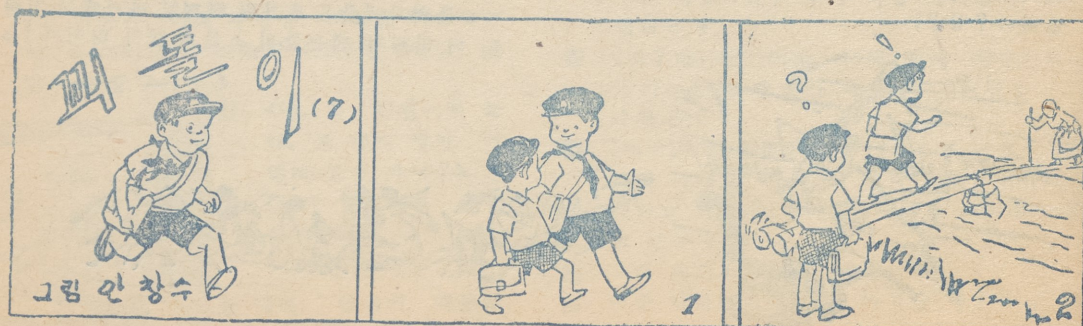
공원이나 극장, 영화관, 뻐스나 기차'간에서 큰 소리로 떠들지 말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에게 자리를 내 드려야합니다.

례절에서 또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말을 쓰는 것입니다. 문명하고 례절 있는 사람은 언제나 아름다운 말들을 씁니다.

반말과 사투리를 함부로 쓰지 말며 상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문화적인 말을 써야 례절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리하여 모두 다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답게 례절 있고 문화적인 사람으로 자기를 꾸준히 준비하여 나갑시다.

꾀돌이 (7)

그림 안 창수

어린 과학자들에게

래일의 과학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과학원 원사 교수 도 상 록

지남철에 관한 이야기에 견주어 꽃봉오리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지남철은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다 남극과 북극 하나씩을 가지고 있다. 현미경으로 겨우 볼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지남철이라고 해도 역시 남극과 북극 하나씩을 가지고 있다.

지남철은 자유로 움직일 수 있게 해 놓으면 그 남극은 지구의 북극을 가리키며 북극은 지구의 남극을 가리키면서 정지한다.

산에 있는 바위를 정으로 쪼아 보면 사삼 산화철이라는 성분을 흔히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남철인 것이다. 산의 바위가 오랜 기간 바람과 비에 씻기면 가루처럼 부서져 비'물에 씻겨 내린다. 그중에는 가루 같은 지남철도 섞이여 있게 된다.

가루 같은 지남철이 비'물과 함께 골짜기 물에 내려 와서 이굽이 저굽이를 돌아 강에 들어 가게 되며 드디여는 바다로 흘려 내리게 된다. 가루 같은 지남철은 얕은 바다로 들어 갈 수도 있고 깊은 바다로 들어 갈 수도 있다.

얕은 바다로 들어 간 지남철은 풍랑에 시달리어 자기 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깔아 앉고 만다.

깊은 바다로 들어 간 지남철은 바다 표면에서 풍랑을 겪다가 깊은 곳에 깔아 앉으며 고요한 물을 만나 자기 본성을 나타내게 된다. 즉 지구의 남북극 방향으로 자기 방향을 잡으면서 바다 밑에 깔아 앉는다. 뒤에 내려 온 지남철들도 또한 이렇게 하고 그 뒤도 그렇다.

그런데 지구의 남북극 방향은 매우 천천히 일정한 방향으로 변해 간다.

따라서 깊은 바다 밑에 깔아 앉는 지남철은 그때 그때의 지구의 남북극 방향을 가리키면서 깔아 앉고 또 깔아 앉는다. 이렇게 깔아 앉은 지남철은 몇 천만년 동안 몇 억만년 동안 자기의 위치를 그 대로 지키고 있다.

지금 태평양의 깊은 바다에 가서 쌓이고 쌓인 이 지남철 층을 그 대로 들어 올리고 정밀한 현미경으로 조사해 보면 맨 아래에 있는 지남철의 방향과 맨 우에 있는 지남철의 방향은 서로 70도 쯤 어긋 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즉 지구의 남북극 방향이 그만큼 변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학자들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지구의 년령을 계산하였는데 50억년 정도로 되였다. 깊은 바다 밑에서 긴 세월 동안 자기의 위치를 지킨 지남철들의 수고가 이렇게 큰 보람을 나타냈다.

래일의 과학자들인 꽃봉오리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얕은 바다로 내려간 지남철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영 쓸모 없는 돌 가루로 되고 말았지만 풍랑을 겪으면서 깊은 바다 속 밑에 까지 내려가 자기 위치를 그대로 지켜낸 지남철은 사람들의 과학 연구 사업에 큰 힘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남철로서 자기 구실을 하였다. 때문에 소년단원들도 어려서부터 높은 리상을 가지고 고난 앞에서 물러서지 말고 꾸준히 또 질심있게 학습해야 한다. 그리고 배운 지식을 생활 속에서 살피며, 비록 작은 현상이라 할지라도 무심히 보지 말고 계속 의문을 가지고 파고 또 파고 들어 그 진리를 찾아 내는 학습 태도를 어린 시절부터 키워야한다.

이렇게 쌓고 쌓여진 지식이 바로 50억년 동안 바다 밑에 깔려 굴함 없이 자기 위치를 지켜, 오늘 마침내 사람들의 과학 연구에 크게 이바지한 지남철처럼 훌륭한 지식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꾸준히 배우고 일하고 지식을 쌓아 나아 가자.

그리하여 김 일성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훌륭한 과학의 전사가 되자.

수학의 력사

과학원 물리 수학 연구소 수학 연구실 김 창 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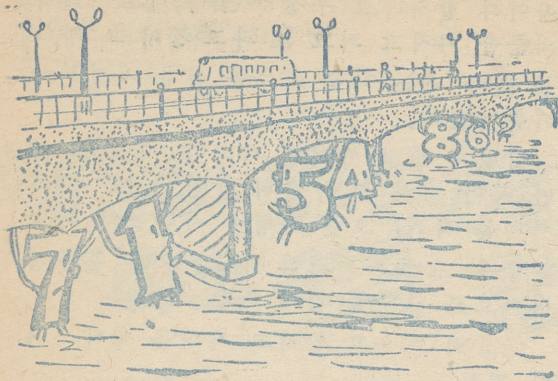
수학은 언제 생겨 났는가?

수학은 벌써 4,000 년 이전에 생겨 났다.

옛날에도 사람들은 로동을 하여 자기 생활을 해 나갔다. 처음엔 짐승도 잡아 먹고 나무 열매도 따 먹었다. 그러다가 차차 발전하여 농사를 짓게 되였다. 이 때 사람들은 자기들이 얻는 물건을 세기도 하고 밭의 면적을 계산하게도 되였다. 또한 곡식이나 물건들을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릇들의 체적을 계산하게 되였다. 그리고 장마철 홍수를 막기 위하여 동뚝을 쌓거나, 집을 지을 때 일을 쉽게 하고 빨리 하기 위하여 지레'대와 같은 기구들도 만들게 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체의 속도, 무게, 거리 같은 것을 계산할 필요가 생기게 되였고, 시간을 셀 필요도 생기게 되였다. 이 때마다 옛날 사람들은 면적을 계산하는 문제, 속도나 시간을 계산하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였다. 이렇게 하여 수학이 생기게 되였다.

옛날에 세운 기념비들에 새겨 있는 글이나 그림들을 보면, 애급 사람들은 4,000 년 전에 벌써 사각형이나 원의 면적을 계산하였고 나아가서는 밑변이 정방형이고 웃 부분이 잘린 피라미드의 체적을 계산하는 문제를 풀었다. 이 때 사람들은 또한 10진법으로 세는 법과 분수를 계산하는 법도 알고 있었고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도 알고 있었다.

그 후 기원전 1~4 세기에 와서는 희랍에서 수학이 빨리 발전하였다. 여기에서는 특히 기하가 많이 발전하였다. 이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희랍의 수학자 피다고라스와 유크리트들이 기하에서 나오는 중요한 정리들을 발견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4 세기 이 전 삼국 시대에 벌써 지붕의 모양을 기하학적 방법을 써서 세계에서 유명한 집들을 지었고 또 몇 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무너지지 않는 성문을 쌓았다. 그런데 이 건축물들은 못 하나 쓰지 않고 돌을 깎아서 서로 맞물리게 쌓았는데 그 기술이야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고구려 시대에 와서는

벌써 나라에서 대학을 세우고 수학을 배워 주었다.

우리의 선조들은 오랜 옛날부터 비오는 량을 측정하여 일기 예보를 하였고, 해와 달, 날이 가는 것을 계산하여 력서를 만들었다.

이와 같이 우리 선조들은 오래 전부터 수학을 공부하여 자기 생활에 리용하였다.

우리 선조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수학자인 홍 대용 선생(1731년~1783년)은 대수 방정식을 푸는 정확한 방법을 연구해 냈다.

수학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수학은 과학과 기술,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 필요하다.

오늘 과학도 발전하고 기술도 대단히 발전하여 뜨락또르, 불도젤과 같은 웅장한 기계들, 비행기, 우주 로켓트, 인공 지구 위성과 같은 놀라운 기계들을 척척 만들어 내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은 기계들도 수학을 모르면 만들 수 없다.

때문에 수학은 물리, 화학, 생물학과 함께 모든 자연 과학의 기초 과목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가 뜨락또르나 자동차와 같은 큰 기계들을 만들 때도 쇠는 얼마나 세야 하고 축은 얼마쯤 튼튼해야 하는가 등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대포알이 목표에 꼭 맞게 하거나 로켓트가 날아 가서 목적지에 면바로 떨어지게 하자고 해도 역시 수학 방정식을 풀어야한다.

뿐만 아니라 수력 발전소를 건설할 때나, 큰 집을 세울 때, 다리를 놓을 때 설계를 하기 위해서도 수학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다.

천리마로 달리는 우리 나라에서는 과학도 빨리 발전하고 기술도 빨리 발전하여 날마다 더 좋고 더 정밀한 기계들이 나오고 있다.

앞날의 주인공들인 여러 동무들은 이런 기계들을 척척 돌리고 또 보다 훌륭한 기계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므로 수학을 열심히 배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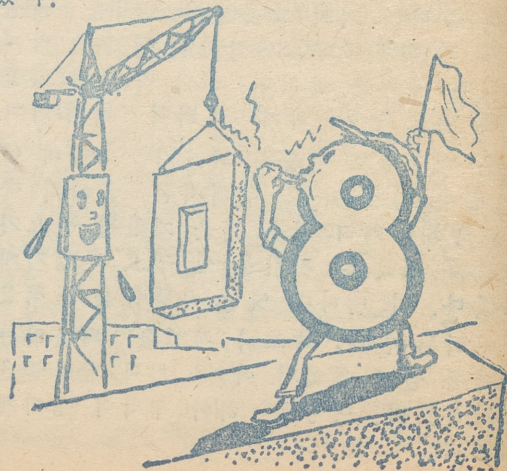
어떻게 하면 수학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가?

수학은 처음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우리들이 다아는 바와 같이 산수나 기하에서 공식을 배울 때 그 전에 배운 공식을 써 먹을 때가 많다. 그래서 처음에 배운 공식들을 모르면 그 후에 배우는 공식도 잘 모르게 된다. 그러므로 수학은 배우는 족족 꼭꼭 머리에 넣도록 공부해야 한다.

수학 공부에서 좀 뒤떨어지면 먼저 배운 것들을 처음부터 차례로 다시 복습해서 잘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수학 공부를 잘 하자면 학교에서 배운 정리나 공식들을 써서 재미 있는 련습 문제도 풀어 보고 직접 우리 생활에 리용해 보아야 한다. 공식이나 따로 외우고 실지 생활에서 익혀 나가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다 잊어 버리고 만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수학은 못 하겠다》고 하는 학생은 공부를 하기 싫어 하는 학생이다. 매일 배운 것을 열심히 복습하며 실지 생활에서 익혀 나가면 누구나다 수학 문제 풀이에서 명수가 될 수 있다.

독자란

(작문)

역삼 심던 날

닭의 울음 소리와 함께 잠'자리에서 깨여 난 나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어제'밤에 그렇게도 흐리였던 날씨는 우리의 역삼 심는 날을 축하하는듯 맑고 청청하였다.

나는 급히 점심 그릇과 삽을 준비하여 가지고 학교로 갔다. 운동장에 모인 우리는 잠시 후에 목적지인 장재덕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장재덕은 학교 마을에서 20 리'길을 올라 가야 한다.

산은 높고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듯이 우뚝 솟아 있다. 우리는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따라 한 줄로 렬을 지어 올라 갔다. 산마루에서 내려다 보는 고향의 풍경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나무'잎 사이로 들려 오는 온갖 새들의 아름다운 노래'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었다.

드디여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우리들은 풀을 깎아 내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땅에서는 구수한 흙냄새가 물큰물큰 풍겨 왔다. 동무들의 웃음 담은 얼굴들은 붉게 달아 오르고 이마에서는 구슬알 같은 땀 방울들이 굴러내렸다.

한참 동안 일하는데 3 반이 작업하는 쪽에서 떠들석한 소리가 들려 왔다. 나도 그리로 가 보았다. 땅 속에는 언제 쓰던 것인지 녹 쓴 칼, 그릇, 귀가 깨진 작은 단지 등이 묻혀 있었다. 누구인가 《선생님, 어째서 여기에 칼, 그릇 같은 것이 파 묻혀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 가구들은 그 흔적으로 보아 20 여 년 전에 묻힌 것인가 봅니다… 그 때는 바로 일제놈들이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인민을 못 살게 굴던 때였지요. 그래서 왜놈들 등'살에 살'길이 막혀 쫓겨 다니다 여기서 살았던 모양입니다. … 그 당시에는 일본놈들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이리 저리 쫓겨 다니다가 이런 산 속에다 부대밭을 일쿠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을 못 살게 군 일제 원쑤놈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마음이 달아 올랐다.

한편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오늘을 가져다 준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에 대한 깊은 감사의 정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다.

추운 겨울에도 한 벌의 삼베 옷으로 온 가족이 돌려 가며 입고 살아 왔다는 화전민의 터전에다 우리는 전교생이 토끼털 외투를 입고 나설 행복한 모습을 머리 속에 그리면서 역삼을 심었다.

강원도 천내군 화라 공업 학교
리 택선

(동시)

이사하는 날

내가 사는 우리 마을 병점동에는
살기 좋고 아담한 문화 주택 일떠섰죠.
도시마냥 화려한 문화 주택 거리로
오늘은 우리 집 이사하는 날

옛날 지주'집 부럽잖게
기와집에 곡간도 갖춰 있고요.
학습실 내방도 따로 있는 집.
문화 주택 우리 집은 참말 좋아요.

이사한 첫 날 밤 전등 아래서
할머니는 옛 이야기 펼쳐 놓았네
최 지주네 허청'간에서 마소와 함께
억울하게 살아 온 지난날 이야기…

나는요 똑똑히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문화 주택 새 집을 주고
기쁨과 행복을 안겨 준
사회주의 우리 나라 참말 좋은 나라.

황북도 금천군 계정 중학교 초급반 2 학년 최 정렬

(작문)

나는 아버지를 못 보았어요

내가 인민 학교를 최우등의 성적으로 마치고 초급 중학교 1 학년에 진급한 날인가 봐요.

저녁상을 물린 어머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리어 있었으나 두 눈은 흐리여 있었어요. (왜 내가 자랑스러운 중학생이 된 첫 날에 눈물까지 흘릴가? 어머님은 나의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 줄가? 어머님은 나빠…) 나는 못마땅해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바로 이 때 어머니는

《내가 너에게 잘못을 저질렀구나. 네가 중학생이 된걸 돌아가신 네 아버지가 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니…이런 생각이 가슴에 불쑥 치밀어 올라 네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였구나》라고 띄염띄염 말씀을 잇는 것이였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니 어머니를 나무란 내가 어쩌나 민망스러운지 몰랐어요. 나는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채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러나 나는 조국 해방 전쟁의 일시적 후퇴 시기 원쑤놈들에게 끌리워 사형장에 나가서도 끝내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최후를 마친 아버지의 모습이 머리 속에 떠 오르자 힘있게 머리를 쳐 들었어요. 순간 미제에게 학살 당한 애국 시인 강승환 선생이 사형장에서 읊은 불'멍이 같은 시의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

우리는 원통하게 죽는다.
그러나 이 죽음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안다. ……

……

이 땅에서 원쑤들을 씨도 없이 쳐부시고
인민의 락원을 꾸려 놓는 날

우리 다시 여기서 살아 일어나리라!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죽지 않았어요. 영원히 죽지 않았어요. 간악한 미제 원쑤놈들은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붉은 심장만은 빼앗지 못했어요.

수 많은 우리들의 부모들을 학살한 미제 승냥이는 오늘도 남녘땅에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을 마구 학살하고 있어요. 생각만 해도 악이 치받칩니다. 나와 같이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없게 하기 위해 나는 싸우겠어요. 남조선에서 미제 원쑤놈들을 몰아 내기 위하여 아버지 어머니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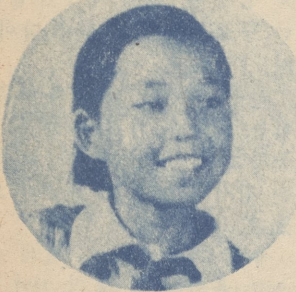
평남도 평원군 남산 중학교
초급반 2 학년 김 화자

어린 독서가

평양시 삼마 중학교 단 벽보 주필인 최 희경 동무는 소년단 생활과 학습에 모범이며 동무들 속에서는 《이야기 박사》 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어요.

그것도 그럴것이 항상 동무들과 마주 앉거나 단 위원회에서 지도할 분공을 받은 인민반 4 학년 3반 어린 동생들과 만나면 먼저 재미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군 하니까요.

그럼 희경 동무에게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어데서 생겨 났을가요?

희경 동무는 책을 무척 사랑하는 동무예요. 책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모범을 본받으며 자기 지식을 넓히기에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지요. 희경 동무는 혁명 전통에 관한 책, 학과 학습에 도움되는 책, 소설, 동화 옛'이야기 책등을 골고루 섞어서 독서 계획을 세우고 독서합니다. 그의 계획은 책의 크기에 따라 하루에 한 제목씩 또는 20페지씩 꼭꼭 읽도록 되여 있어요.

오늘까지 희경 동무는 자기의 독서 계획을 하루도 어겨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루도 빠짐 없이 꾸준히 독서해 온 희경 동무는 초중 1 학년 때부터 오늘까지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수학의 지혜, 도끼 장군을 비롯하여 150여권의 책을 읽었어요.

읽어 가는 가운데 새로 나오는 어휘들과 아름다운 말들은 붉은 줄을 그어 두었다가 다 읽은 다음 《우리말 수첩》에 적어 넣고 매일 생활에서 그 말을 써 보며 익히기에 힘쓰고 있어요.

한 번 읽고 내용을 잘 알 수 없을 때에는 다시 한 번 읽어 보군 합니다.

책을 읽고난 다음에는 무엇을 본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고 감상을 쓰며 자기 결의를 다집니다.

이와 같이 꾸준히 독서하는 희경 동무에게 좋은 이야기' 거리가 많을 수 밖에…

그래서 그는 동무들에게 《이야기 박사》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소년단 생활과 학과 학습에서 항상 모범이 되고 있지요.

(그림 평)

소년단원들의 그림을 보고

미술 대학 최 원삼

평양시 대보 중학교 단에서는 지난 7월 중순에 그림 전람회를 가지였습니다.

전람회에는 사생화, 주제화, 연필화, 조선화 등 우수한 작품들이 수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우수한 작품들 가운데서 몇 장을 골라서 그림 평과 함께 여기에 소개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 먼저 구도를 잘 잡아야 합니다. 도화지의 크기에 비하여 너무 물건들이 작게 그려지거나 크게 그려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소개한 그림들은 대체로 구도가 잘 되였는데 다만 《도마도, 호박, 고추》가 도화지에 비해 약간 작게 그려졌습니다.

다음에 멀고 가까운 곳을 도화지에 그릴 때는 한 점에서부터 시작하여 멀어질수록 물체들이 점점 작아져야 합니다.

김 철수 동무의 그림 건설장은 아주 이것을 잘 살렸습니다. 즉 도로와 아빠트들이 멀어질수록 작아졌을 뿐만 아니라 먼 물체에 비해 가까운 물체가 더 명확하게 그려졌습니다.

또 밝고 어두운 곳을 나타내는 데는 광선이 비쳐 주는 곳에 따라서 잘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사 광선에 대해서도 주의를 잘 돌려야 합니다. 이 그림들에서는 광선들이 모두 잘 그려졌습니다. 약간 부족한 것은 도마도에 반사되는 광선을 좀 더 잘 처리했으면 훌륭한 그림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림 《각추》에서 면의 굴곡에 의한 광선은 잘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면 내에서 위보다 아래가 점점 더 어두워져야 하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였고 또 배경과의 관계도 명확하지 못합니다.

다음에 형태를 정확하게 그리자면 우선 정확하고 깨끗한 것을 선택하여 그려야 합니다.

그림 《오리》를 보면 부정확한 오리 박제 표본을 놓고 그렸기 때문에 머리 부문과 다리 부문이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끝으로 수채화에서는 우선 색을 밝게 써야 합니다. 그리고 종이 색갈이 살려져야 합니다.

그림 《도마도, 호박, 고추》는 색을 밝게 잘 썼습니다. 그 밖의 그림도 모두 색을 아주 훌륭하게 썼다고 봅니다.

(어린 기술자)

열 환류 실험기

평북 운전군 운전 중학교 단 물리 크루쇼크원들은 물리에서 배운 지식을 리용하여 《열 환류실험기》를 만들었다.

그들은 공부 시간에 배운 지식을 가지고 언제나 이렇게 자기들의 힘으로 실험 기구를 만들어 보군 한다.

그들이 만든 실험 기구와 교편물은 350 여 종이나 된다.

이제 그들이 만든 흥미 있는 《열 환류 실험기》를 다음에 소개한다.

× ×

ㄱ. 재료

판자, 쇠줄, 마분지, 축음기 바늘, 소케트, 전구.

ㄴ. 만드는 방법

그림 1 과 같이 판자에 쇠줄을 구부려서 꽂고 꾸부러진 가운데다 축음기 바늘을 납땜하여 붙인다.

판자 가운데는 구멍을 뚫고 소케트를 꽂아서 전구를 끼울 수 있게 하고 판자 한켠 구석에 스위치를 달아 놓는다.

다음에 마분지로 그림 2와 같이 둥근 통을 만든다. 이 때 웃 면에는 같은 크기의 4각형을 그리고 세 변을 베서 날개들이 한 방향으로 향하도록 위로 꺾어 놓으면 된다.

둥근 통의 중심에는(축음기 바늘 끝이 닿을 곳) 자그마한 홈이 생기도록 바늘로 꼭 눌러 놓는다.

둥근 통의 바깥 면에는 붉은 색, 푸른 색, 누런 색을 칠한다.

× ×

스위치를 넣으면 전등이 켜지면서 둥근 통 안의 공기가 더워진다. 더워진 공기가 둥근 통 구멍으로 나오면서 날개들을 밀게 된다. 그리하여 둥근 통은 돌아 가기 시작한다.

(이것을 아십니까?)

고요한 밤' 중에 듣고 보기

비행기 소리~40km
대포 소리~5km
대도시의 소음~3km
땅크나 자동차 소리~2km
총소리~1km
말발굽 소리~0.5~1km
우등'불 빛~8km
대포 쏘는 불 빛~3~4km
소총과 기관총의 불 빛~1.5~4km
성냥'불 빛~1.5km
담배'불~0.5km

※헤염치기

4. 나비영

나비영에는 평영식 나비영과 물'개식 나비영이 있다.

(ㄱ) 평영식 나비영

몸 자세—다리 동작은 평영에서와 같다. 평영과 다른 점은 팔 동작이다.

팔 동작은 다음과 같다.

물에 잠겼던 두팔을 빼낼 때 상반신을 물 우로 쳐 들며 어깨의 너비로 벌려서 머리 앞으로 가볍게 빼내야 한다. 빼낸 팔은 팔'굼치를 약간 굽힌 채 앞으로 가져가며 두손이 수면에 닿을 때 기본 자세로 된다.

팔 동작이 끝난 다음에 다리 동작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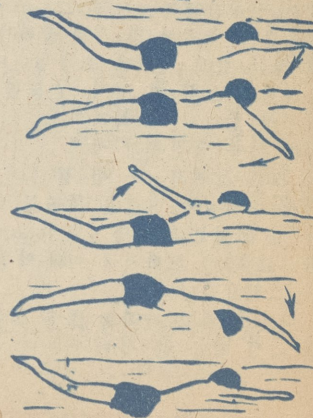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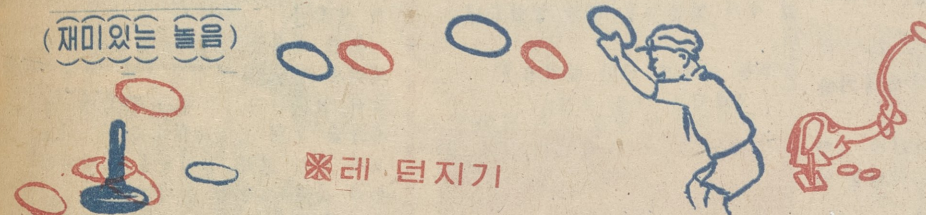
호흡은 두 팔을 물에서 빼낸 때로부터 다시 물에 담글 때까지 숨을 들이 쉬며 얼굴을 물에 넣은 때로부터 젓기 동작이 끝날 때까지 숨을 내쉰다.

(ㄴ) 물'개식 나비영

기본 자세, 팔 동작, 호흡 동작은 평영식 나비영과 같으나 다리 동작이 다르다. 즉 두 다리를 몰으고 아래 우로 찬다.

물'개식 나비영에서는 팔 동작 1회 하는 사이에 다리 동작은 마음대로 한번 두번 세번도 할 수 있다. 이것을 물'개식 나비영에서는 1타법, 2타법, 3타법 이라고 말한다.

(1 타법)

유쾌한 오락실

(재미있는 놀음)

※테 던지기

1. 필요한 재료

그림과 같은 수'자판과 다섯 개의 테.(쇠줄, 싸리'대, 칡 넝쿨로 만들 수 있다.)

2. 노는 방법.

(ㄱ) 수'자판을 2~3 m 앞에 놓는다.

(ㄴ) 개인전 또는 편을 갈라 하는데 편을 갈라 할 때는 량편이 서로 한 사람씩 교대하여 다섯 개의 테를 던져서 얻은 점수를 계산한다.

(ㄷ) 던진 테가 한 번에 몇 두개를 꿰는 때는 두 간의 수를 다 합하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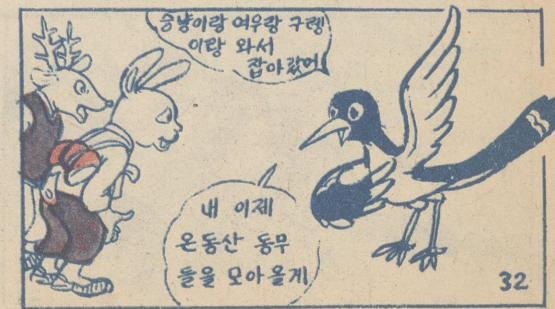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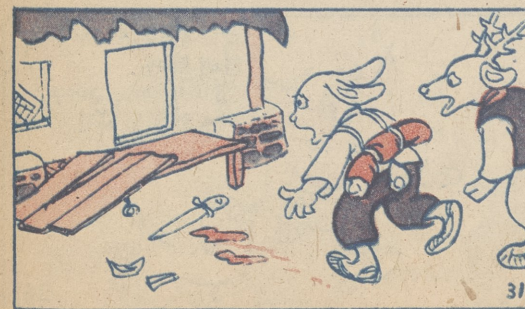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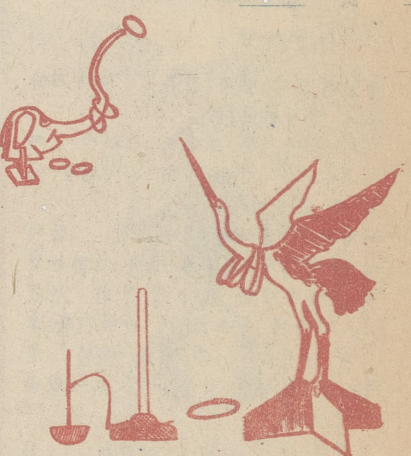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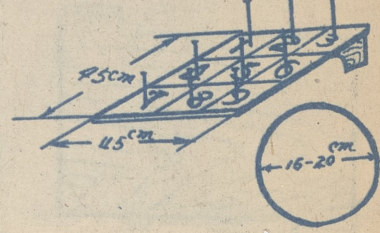
(ㄹ) 이리하여 점수를 많이 얻은 편이 이기게 된다.

(ㅁ) 테를 던질 때 발 끝이 선 앞으로 나오는 때는 무효로 한다.

☆테 던지기 재료들.

세우는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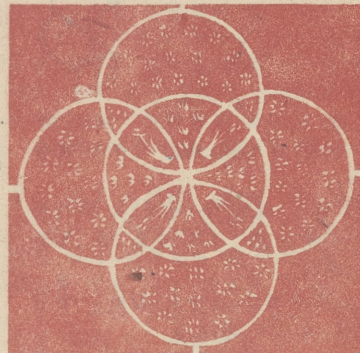
이 밖에 여러가지 모향을 만들 수 있다.

련재만화 (3회)

(어떻게 할가요?)

※생각하고 궁리하면 버릴 것이 없다.

영남이는 그림과 같은 판대기를 보고 생각하였다.
(이 판대기를 조금도 버리지 말고 64 개의 칸을 가진 꼬니판을 만들 수 없을가?)
영남이는 생각하고 궁리한 끝에 이 판대기에 64개의 칸을 그렸는데 매 돌출부에는 칸이 두개씩 생겼다. 다음에 톱으로 이 판대기를 모양과 크기가 똑 같은 두 개의 부분으로 잘라서 맞붙여 꼬니판을 만들었다.
어떻게 잘라 버렸고 어떻게 맞붙였을가요?

※ 꽃밭 구경

즐거운 여름 방학의 아침 영남이네 반 동무들은 맛 있는 점심을 싸 가지고 공원으로 몰려 갔어요. 공원 한 복판에는 아름다운 가지 각색 꽃들이 활짝 피여 향기를 뿜는 것이였지요. 《얘들아! 꽃 구경을 좀 하고 가자!》 영남이가 말하자 모두들 공원 걸상에 둘러 앉았어요. 이 때 영남이는 동무들에게 물었어요. 구불 구불한 꽃밭 길을 어떻게 하면 지나간 길을 되돌아 오지 않고 한 번에 빠짐 없이 구경할 수가 있을가? 하고 물었습니다.
동무들 어떻게 하면 될가요?
(해답은 다음 호에)

(이것을 아십니까)

음식물을 왜 오래 씹어야 할가요?

우리가 음식물을 입에 넣고 오래 씹으면 음식물은 보드랍게 잘 빻아지며 침이 많이 섞여 소화가 잘 됩니다.

침에는 효소라는 것이 있어 음식물에 있는 전분을 포도당으로 변화 시킵니다.

또한 침에는 씹은 음식물을 덩어리로 만드는 껍진껍진한 점액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을 오래 씹어 침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것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한편 음식물을 씹을 때 위에서는 위액이 흘러 나옵니다. 음식물을 오래 씹을수록 위액도 더 잘 나와 먹은 음식물이 잘 소화되게 하며 영양분이 모두 사람의 몸에 잘 흡수되게 합니다. 음식물을 잘 씹지 않고 빨리 먹으면 건강에 해로우며 만성 위염을 비롯한 여러가지 소화기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알아 마치기

다음과 같이 글'자들을 아무렇게나 벌려 놓았습니다. 동무들은 이 글들을 순서대로 놓아 보세요. 그리고 이 글을 어데서 보았습니까? 알아 맞처 보세요.

물무를고단사동랑집하는단를서한
여사이하변원랑다!

제출자 함북 화대군 양촌 중학교
김 창욱

※(속담)

△동무 몰래 랑식 낸다
(남 몰래 좋은 일을 한다는 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린다
(남에게 좋은 일은 권하고 좋지 못한 일은 말려야 한다는 말)

※모양 그리기

다음의 그림을 연필을 떼지 않고 그려 보세요.

☆ 어떻게 하면 같은 4각형으로 나눌 수 있겠는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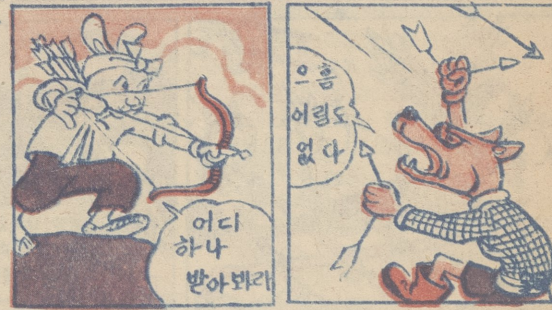
※수수께끼

△튼튼히들이 잡을 수록 빨리 뛰는 것이 무엇일가요?

△소리 없이 창 구멍으로 들어 오는 것이 무엇일가요?

△한 번 먹고 입을 다무는 것이 무엇일가요?

《함의 비밀》의 해답

함은 모으로 밀어 열게 되어 있으며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요술 놀이

☆ 색이 변하는 물

이 요술은 컵 속에 든 붉은 물을 금시에 희게 하는 요술이다.

ㄱ. 준비—보통 흰 색으로 된 유리 컵 한 개와 이 속에 드나들 수 있는 좀 깔깔한 붉은 천으로 만든 컵 (밑 구멍이 뚫어지게 만든 것). 이 외에 손'수건이 하나 있으면 된다.

연기자는 유리 컵 속에 천으로 만든 컵을 넣고 천의 웃 테두리까지 물을 부어 놓는다.

ㄴ. 방법—연기자는 이 컵을 한 손에 들고 나와 책상 우에 놓고 주머니 속에서 손'수건을 끄집어 내여 관람자들에게 량쪽 면을 보인다. 다음 손'수건을 컵에 씌우고 간단한 연기로써 관람자들의 눈을 쏠리게 한 후 손'수건을 벗길 때 컵 속에 있는 천으로 만든 컵을 함께 끄집어 낸다. 그러면 물이 금시에 변한 것으로 보인다

8호 현상 문제

☆병무게는 얼마일가요?

저울의 왼쪽 접시에는 병과 컵이 있고 오른쪽 접시에는 물 주전자가 놓여 있다. 이 때의 무게는 서로 똑 같았다. 컵을 저울의 왼쪽 접시에서 오른쪽으로 옮기고 물 주전자를 사발로 바꿔 놓았다. 이 때에도 무게는 서로 똑 같았다. 다음 저울의 왼쪽 접시에서 병을 치우고 대신 두 개의 같은 물 주전자를 놓고 오른쪽 접시에는 컵 대신에 같은 사발 두 개를 더 놓았다. 그래도 무게는 서로 똑 같았다.

병은 컵보다 몇 배 더 무겁겠는가?

☆5호 현상 문제 당선자

황북 신평군 미송 중학교 강 만익
함북 길주군 길주 중학교 리 승일
강원도 안변군 월랑 중학교 리 춘대
황남 옹진군 삼산 중학교 강 선형
함남 함주군 신성 중학교 리 종규
리 종길, 리 종선, 량 무남,
한 정대, 강 선우,
함북 온성군 온탄 중학교 리 청룡
리 순남
평남 온천군 서화 중학교 김 병순
외 10명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62년 제 8 호 (총 154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청출판사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ㄱ—230454 값 25 전 150,000부 발행

관서 팔경

관서 팔경이라는것은 관서 지방(오늘의 평안 남 북 도와 자강도)에서 경치가 가장 좋은 평양의《련광정》, 성천의《강선루》, 녕변의 《약산 동대》, 안주의 《백상루》, 선천의 《동림 폭포》, 의주의 《통군정》 강계의 《인풍루》 만포의 《세검정》을 가리켜 말 합니다.

(그중 몇을 소개 합니다)

동림 폭포

평북 동림군 고군영리에 있는 동림 폭포는 10 m 나 되는 높이에서 뽀얀 안개를 일쿠면서 떨어지는 물이 구슬 같이 맑다하여 옥포라고도 불리웁니다.

폭포 아래에 있는 말안장 같이 생긴 바위와 병풍 바위는 이름 그대로 그 생김새가 신통스럽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인풍루

인풍루

인풍루는 리조 시기(1473년)에 세워진 것으로서 옛날에는 지방 무관들이 시험을 치르는 장소로도 되였습니다.

방금 학이 날아 갈듯한 모습을한 인풍루는 독로강 푸른 물이 북청강 물과 합하여 감도는 깎아 지른듯한 절벽우에 서 있어 그 모습을 더욱 아름답고 웅장하게 해줍니다.

강선루

통군정

압록강 푸른물 기슭, 미릇한 삼각산 마루에 하늘 높이 솟아 있는 통군정은 언제 지었는지 딱히 알 수 없으나 1478년에 그 모습을 더 크고 웅장하게 고쳐 지었으며 이것을 1824년에 다시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 많은 장군들이 여기에 올라 북으로부터 침입해 오는 거란, 몽고 녀진 침략자들을 막아 통군의 명령을 내리던 곳이라하여 통군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통군정은 1592년 임진 조국 전쟁시기 선조왕과 여러 장군들이 왜적을 물리치기 위해 의논하던 곳이였고 1636년에는 녀진 침략자들을 막아 의주 인민들이 용감히 싸우던 곳입니다.

통군정

련광정

대동강 기슭 덕바위라고 불러오는 굳은 바위 우에 날아 갈듯이 서있는 련광정은 옥류교를 사이에 두고 손저어 옥류관을 부르는듯 합니다.

1111년에 지은 련광정은 그 모습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뛰여난 건축 재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록음이 짙은 련광정은 오늘 근로자들의 즐거운 문화 휴식터로 되고 있습니다.

세검정

락화암이라 부르는 약 90 m에 달하는 높은 벼랑 우의 옛 정자터에 오르면 압록강 물에 유유히 흐르는 떼'목들이 한폭의 그림처럼 굽어 보입니다.

이곳을 세검정이라 함은 1636년 청나라 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박 남여 장군의 지휘하에 이곳 인민들이 용감히 싸운 공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해 리조 봉건 정부는 나라 명의로 이 자리에 정자를 짓고 그 이름을 세검정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세검정

약산 동대

봄날의 산놀이로 이름난 약산 동대에는 유명한 철옹성지를 비롯하여 녕변 남문, 북수구문, 서운사, 천주사등 유서깊은 고적들과 절들이 있습니다.

약산 동대에는 약초들이 많으며 봄이면 진달래가 온산에 붉게 피여 근로자들을 즐겁게 합니다.

약산 동대에도 옛날 우리 선조들이 거란군의 침입을 물리치며 용감이 싸운 이야기와 1174년 봉건 통치배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인민들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약산 동대